



안전보건

2026 JUNE Vol.442

안전보건공단

발행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_ 등록·출판증 리00811989.04.29 | 제3종 우편물 나급인기(90.11.28) | 제 38권 6호 \_ 통권 442호 | ISSN 2288-1611 | 2026.6.1 매월 1일 발행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youtube.com/@koshamovie](https://youtube.com/@koshamovie)

안전보건공단 블로그  
[blog.naver.com/koshablog](https://blog.naver.com/koshablog)

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facebook.com/KOSHAnet](https://facebook.com/KOSHAnet)

안전보건공단 카카오토리  
[story.kakao.com/ch/kosha](https://story.kakao.com/ch/kosha)

안전보건공단 인스타그램  
[instagram.com/kosha.angel](https://instagram.com/kosha.angel)

안전보건공단 X(구.트위터)  
[X.com/KOSHAnet](https://X.com/KOSHAnet)

# 안전 보건

**발행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인** 김현중 이사장

**편집위원장** 안전문화홍보실 원진성 실장

**외부위원** 한국산업보건학회 김승원 편집이사  
한국안전학회 옥승용 편집이사  
동양대 스마트안전시스템학부 김상현 교수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이영화 교수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김광일 본부장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최명선 실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교육원 유정서 전임교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김동운 부장  
김장 법률사무소 김병규 전문위원  
젠더심향상교육원 우명순 센터장  
노동건강연대 박한솔 활동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  
직업건강협회 정미경 교육센터장  
CJENM 안전관리팀 고경환 팀장

**내부위원** ESG경영성과실 성과평가부 이동훈 부장  
산업안전실 안전체계지원부 고인수 부장  
중소기업지원실 재정사업부 이종곤 부장  
산업보건실 건강증진부 문현곤 부장  
건설안전실 건설기술부 강철운 부장  
전문기술실 화학사고예방부 이태형 부장  
중앙사고조사단 과학사고조사부 김정덕 부장  
교육총괄실 교육콘텐츠부 최승근 부장  
교육총괄실 외국인협력팀 김태일 팀장  
안전문화홍보실 안전문화부 최원창 부장  
안전보건평가실 등급심사평가부 권준혁 부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부 고인희 부장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이상근 교수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보호구인증부 오승현 부장

**담당** 김정상 팀장, 박세빈 대리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기획·디자인** 필드가이드 02.6375.2665

**인쇄** 명일인쇄

**홈페이지** www.kosha.or.kr

**6** 2026 JUNE  
Vol. 442

## 02 Cover Story



“즐거운 안전” 꿈꾸는 7인의 임플로이언서” 02

**안전한 일터 1**  
IPARK현대산업개발 “안전의 새로운 길을 연다” 06

**안전한 일터 2**  
건설하이콘(주) “안전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 연다” 12

**궁금한 일터**  
“부채의 대를 이어 가는 선자장 김동식의 합죽선 공방” 18

## 06 FIELD REPORT



## 26 INSIGHT



**View Point**  
“안전 리더십은 안전을 ‘주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26

**Workers In Focus**  
“감정노동, 회사의 책임을 생각한다” 28

**Seasons**  
“본격 폭염·장마 앞둔 6월, 현장 안전의 적 ‘감전’ 주의보” 30

**Law & Case**  
“양주 채석장 붕괴 참사가 묻는 ‘실질적 지배’의 무게” 32

## 36 CULTURE



**Safety Cheers ·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시즌 2**  
“치즈 명가 임실치즈농협을 찾다” 36

**Studio**  
“일상에 스미는 안전 콘텐츠가 되다” 42

**Episode 1**  
“2026 외국인 안전리더 선발” 44

**Episode 2**  
“포켓몬 런 2026 in Seoul’ 현장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46

**People**  
“정책과 현장을 잇는 교육 설계자가 목표입니다” 48

## 50 TOOLKIT



**현장에서 바로 쓰는 안전보건 정보**  
밀폐공간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 50  
외부마감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 51

**언어 장벽 없이 보는 안전보건 정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본 안전수칙 52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핵심 한국어 53

**산업재해 통계**  
2025년 제조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54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55

## 56 LIFE CARE



**제철 음식 이야기**  
태양을 품은 붉은 보석, 토마토 56



COVER STORY  
안전보건공단  
임플로이언서 7인

# 스마트폰 들고 '유쾌한 반란' '즐거운 안전' 꿈꾸는 7인의 임플로이언서

글 &amp; 사진: 편집실

SNS로 더 가까이...

## 솔직하고 친근한 산재 예방 활동

### '절대 금지' '반드시 준수' '철저 점검'

안전을 지키는 데 동원되는 말은 이처럼 엄격하고 경직돼 있다. '맞말'인 줄 알면서도 때로 지겨운 잔소리나 넘어야 할 피로한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견고한 문턱을 허물기 위해 안전보건공단이 파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딱딱한 매뉴얼 대신 스마트폰을 들고 노동자와 직접 소통하는 '임플로이언서' 활동을 본격화한 것이다. 직원(Employe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인 임플로이언서는

공단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했다. 이들은 쇼트폼 콘텐츠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다. 영상 속엔 공공기관의 무게나 권위 대신, 현장의 고충을 꿰뚫는 공감과 유쾌한 위트가 담긴다.

공단이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친근한 안전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선발한 7인의 임플로이언서. 이들이 꿈꾸는 '즐거운 안전'은 어떤 모습일까.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7인의 공단 임플로이언서



QUESTION

- 1 내가 생각하는 '임플로이언서'의 역할 및 활동 다짐!
- 2 '3초' 안에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자신만의 '치트키'가 있나요?
- 3 현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고 싶나요?

“시선을 사로잡는 캐릭터로 전달하는 안전 메시지”

교육총괄실 교육콘텐츠부 박경희 차장

- 1 '안전문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공식 채널 등이 주는 정형화된 느낌 대신,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지식을 현장에서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로 녹여내는 임플로이언서가 되겠습니다.
- 2 안전요원 '미동이'. 산업현장의 작은 위험도 바로 포착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개발한 미어켓 캐릭터예요. 귀여운 캐릭터로 먼저 눈길을 사로잡고, 안전 메시지는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 3 안전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자,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인식을 널리 퍼뜨리고 싶습니다.

“일상과 안전 점점 찾아 실천 가능한 안전 가치 공유”

전북지역본부 경영교육부 김희재 대리

- 1 공단이 산재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지, 더 많은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에서 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공단의 산재 예방 활동을 친근하게 전하겠습니다.
- 2 '썸네일'. 첫 화면에서 승부가 갈리는 쇼트폼의 특성을 고려해 썸네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질 만한 주제와 눈길을 끄는 이미지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 3 제 콘텐츠를 접한 분들이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정도는 지켜야겠다'고 느끼는 순간이 모여, 안전이 현장의 확고한 문화로 뿌리내리길 희망합니다. 핵심은 평범한 일상과 안전의 접점을 찾는 것입니다. 거창한 담론이 아닌 출근길 소소한 습관이나 업무 고민 속에 녹아 있는 안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실천 가능한 안전의 가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AI 기술 접목...현장의 변화 이끌게요”

강원지역본부 안전보건부 최진용 부장대우

- 1 전문 지식을 현실감 있는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시청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내는 소통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 2 AI 기술로 사고 상황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긴박한 순간을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안전수칙에 집중하게 하고, 메시지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강력한 치트키로 활용하겠습니다.
- 3 안전수칙이 '생명을 지키는 습관'으로 자리 잡고, 안전은 가치 있는 '투자'라는 인식이 뿌리내리길 바랍니다. 현장의 능동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 조사를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위험 요인을 직관적으로 시각화하고, 현장에서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친구처럼 다가가는 콘텐츠로 국민 곁에”

강원지역본부 경영교육부 안서우 대리

- 1 딱딱한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벗고, 국민 곁에 가까이 머물겠습니다. 공단과 국민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0cm로 좁히는 소통 창구가 되어 안전을 전하겠습니다.
- 2 '반전의 미학'. 시청자가 궁금증 때문에 다음 장면을 클릭할 수밖에 없는 영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신입사원의 패기와 풋풋한 시선으로 공단 업무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전하고 우리가 안전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일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의 에너지와 진정성을 가감 없이 담아, 틀을 깨는 다양한 치트키를 선보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 3 '안전은 우리 모두의 행복을 지키는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친구처럼 다가가는 콘텐츠를 통해, 안전을 지키는 일이 즐거운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 친구처럼 다가가는 콘텐츠를 통해, 안전을 지키는 일이 즐거운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안전 통역사”

전남동부지사 경영교육부 이지현 과장

- 1 딱딱한 법령과 매뉴얼로 굳어 있는 안전이라는 언어를, 편안하게 전달하는 '안전의 통역사'가 되겠습니다. SNS라는 소통 창구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산재 예방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 '예측 불가능한 라온이'. 제 반려견 라온이의 귀여움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그 일상 속에서 안전의 울림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저만의 치트키입니다.
- 3 안전이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인사'가 되는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나와 내 가족, 동료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이 현장 문화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30년 베테랑의 안전 노하우 전해드립니다”

고양파주시사 교육보건부 조윤경 과장

- 1 개인 채널에서도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는 '신뢰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현장과의 친숙한 소통으로 대한민국에 안전문화가 깊게 뿌리내리도록 돕겠습니다.
- 2 '30년 경력에서 배어 나오는 편안함'. 과감하게 얼굴을 공개하고 시청자분들께 다가가는 만큼, 오랜 시간 쌓아온 실무 노하우와 베테랑의 여유로 구독자의 마음을 사로잡겠습니다.
- 3 '나를 지키는 안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료와 가족까지 생각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안전'으로 인식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방대한 법령과 규정을 찾아보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현장의 눈높이에서 '가장 쉽고 간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 콘텐츠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언제나 편하게 꺼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안전 팁이 되었으면 합니다.

“ 제가 만든 영상이 궁금증을 유발해, 시청자가 안전보건규칙 책자를 찾아 펼쳐 보게 하고 싶습니다. ”

“다시 찾는 안전 지식 맛집을 향해”

강원동부지사 안전건설부 신기훈 대리

-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문용어와 법적 테두리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를 친숙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 2 '초반 3초'의 화려함보다는 '뒷부분의 확실한 반전'을 치트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이나 흥미로운 전개로 통해 시청자가 끝까지 몰입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가 말피의 해인 만큼, 그 상징성을 담아 '안전을 달리다'라는 채널명도 구상했습니다. 최신 밈(Meme)을 빠르게 파악해 안전 메시지와 결합하는, 가장 트렌디한 안전 전도사로 달려보려 합니다!
- 3 제가 만든 영상이 궁금증을 유발해, 시청자가 산업안전포털을 검색하거나 안전보건규칙 책자를 찾아 펼쳐 보게 하고 싶습니다. 다시 찾는 '안전 지식 재방문 맛집'이 되겠습니다.

# 시련을 딛고 다시 세운 원칙 안전의 새로운 길을 연다

## IPARK현대산업개발



고속성장과 도시 집중화로 요약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아파트는 시대의 상징이다. 대형 건설사들이 지은 대단지아파트는 주택의 표준이 됐고, 아파트는 단순히 머무는 '집' 이상의 생활양식이 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 있는 1세대 건설사다. 1976년 설립 이래, 현대아파트와 아이파크 브랜드를 앞세워 약 50만 가구를 전국에 공급하며 아파트의 대단지화와 고급화를 선도했다. 하지만 부침도 겪었다. 특히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았다. 이후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현장을 재시공하고, 안전품질 부문에서 대대적인 쇄신을 단행하는 등 혹독한 반성과 성찰을 거듭했다. 그리고 사고를 통해 얻은 교훈을 이정표 삼아 안전의 가치를 재정립했다. 올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창사 50주년을 맞았다. 다시 세운 원칙을 내재화 하며 새로운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안전경영을 들여다봤다.

글. 홍난희 사진. 박현철

“  
올해 IPARK현대산업개발의  
안전경영 핵심 방침은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

지난 1월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현장에서 '안전·품질 경영 선포식'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다. 안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표한 이날 행사엔 정경구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현장소장 및 임직원, 협력업체 대표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국 50여 곳 현장에서도 선포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날 정경구 대표이사는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완벽한 무재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IPARK현대산업개발의 안전경영 핵심 방침은 '자율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시스템 중심의 관리에서 더 나아가,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위험을 발굴·제거하는 안전문화가 정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전면적 조직 쇠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선포식의 결의는 구호에 머물지 않는다. 사고 이후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전면적인 쇠신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2년 최고안전책임자(CSO) 조직이 독립하며 인사와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조직 개편을 넘어 안전관리체계와 기술·품질 안전의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각 팀은 업무를 전문화해 유기적으로 협업한다. 안전관리팀은 사고 예방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안전환경기획팀은 예산과 인사로 내실을 다진다. 임직원의 교육을 지원하는 'HDC-Safety 아카데미' 운영도 맡고 있다. 기술안전팀은 가설구조물 설계부터 꼼꼼히 검토해 고위험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품질팀은 품질이 곧 안전으로 직결된다는 원칙을 현장에 뿌리내리는 역할을 한다. 전문화한 조직의 역량은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활동으로 이어졌다. 고위험 작업 관리, 상시 모니터링, 체계적인 외부 진단,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사고 예방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우선 모든 공정을 위험도에 따라 나눠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일일 단위 작업계획서를 통해 선정된 고위험 작업에는 안전감시단 또는 관리자를 고정 배치하고 상주 점검을 의무화했다. 만약 현장에서 불안정한 상태나 행동이 발견되면 노동자 귀가 조치를 포함한 즉각적인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모니터링도 한층 강화했다. 본사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현장과 본사가 동시에 위험요인을 살피는 투트랙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전 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위험 상황이 포착되면 즉시 현장에

조치하도록 지시한다. 또한 권역별 안전진단과 정기 점검의 강도도 대폭 높였다. 실제로 2024년 274회였던 점검 횟수는 2025년 두 배 이상인 694회로 늘었다. 올해는 900회 이상의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주말이라고 쉬지 않는다. 팀장급 이상이 불시에 주말 패트를 점검에 나서 365일 빈틈없는 안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단계에 걸친 검증 과정을 도입했다. 설계 단계에서 안전성 검토를 하고, 착공 시엔 시공 계획과 가설 계획의 적정성을 엄격히 분석한다. 시공 중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 기술 검토를 의무화하여 기술적 오류로 인한 중대재해를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안전 생태계가 현장 전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협력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가 자체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고위험 작업 관리 컨설팅을 한다.

경영진도 팔을 걷어붙였다. CSO를 포함한 경영진은 매월 현장을 방문해 밀착 점검을 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측은 "경영진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조직 전체에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천을 독려하는 효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사고 이후 IPARK현대산업개발은 전면적인 쇠신을 통해 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 품질이 곧 안전, '사고 원천 차단'에 초점

건설사의 본질은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 것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의 안전 품질 통합관리 체계 역시 '완벽한 시공이 곧 구조 안전의 출발점'이라는 원칙하에 작동한다. 사고 발생 후 대응하기보다 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구조적 환경을 만드는 '원천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이런 안전 철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다.



우선 건축물의 뼈대인 골조의 정밀 점검을 강화했다. 기존엔 현장별 1회에 그쳤던 점검을 2회로 늘리고, 층별·단계별 리스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시행 중이다. 붕괴 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지하층 공사 시에는 보 거푸집의 전도 방지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지상층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러 서포트(Filler-Support) 존치 기준을 기존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상향 적용했다. 하중 지지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관리 체계는 '즉각 대응'과 '사전 예방'이라는 두 축으로 작동한다. 현장 점검 중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외 없이 즉각적으로 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또 협력회사 교육과 철저한 재점검을 거쳐야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엄격한 환류 시스템을 구축했다.

계절적 요인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다. 지난 동절기에는 레미콘 공급 공장까지 직접 방문하는 합동 점검을 병행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측은 "랜드마크가 될 서울원 아이파크의 위상에 걸맞은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안전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 AI 신기술 적극 도입...스마트 안전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전환을 통한 안전 고도화도 눈에 띈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 발맞춰 'AI 다국어 번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현장으로 확대했다. QR코드를 활용해 TBM과 안전교육을 모국어로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이해도와 교육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떨어짐, 끼임 등 주요 사고 유형을 자동으로 관제하는 'AI CCTV 안전관제' 시스템도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 탐지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불안전 상황 포착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안전 시설물의 가시성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표준화 가이드라인' 정비도 한창이다. 세이프티 게이트부터 각종 표지판의 규격과 디자인을 통일해 시인성을 극대화했다. 정돈된 현장 환경은 관리 효율을 높일 뿐 아니라,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감성 안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리더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위젯형 안전 대시보드'도 가동한다. 수기로 관리되던 안전 지표를 데이터베이스(DB)와 실시간 연동해, 책임자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해도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안전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상시 학습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매년 안전보건 분야의 최신 법령과 사규, 산업 안전 트렌드를 반영한 1000개의 문항은 현장 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된다. 이들은 온라인 모의고사를 통해 스스로 실력을 점검하고, 학습 결과를 확인하며 성취감을 쌓아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상에서 꾸준히 역량을 키우는 자율적 학습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 자율 안전 문화로 여는 '새로운 50년'

IPARK현대산업개발 측은 "광주 사고 이후 전 임직원이 무거운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게 됐다"며 "이런 인식의 변화 덕분에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직원들 스스로 안전을 먼저 챙기고 실천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에서 시작된 변화는 앞으로 나아갈 50년의 동력이 되고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에 지난 4년은 안전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시간이었다. 이제는 이 약속이 현장의 일상이 되도록 만들 때다.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집을 짓는 건설사가 될 것이다.



##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 IPARK현대산업개발 양승철 CSO

IPARK현대산업개발의 안전 사령탑을 맡고 있는 양승철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현장소장을 지낸 '현장 전문가'다. 이런 이력은 "사고 예방의 해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는 그의 원칙을 뒷받침한다. 조직의 체질 개선과 안전 쇄신을 이끄는 양 CSO를 만났다.



**Q. 취임하며 임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안전은 그 어떤 가치와도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고객 신뢰를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투자입니다."

**Q.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현장에서 얻은 '안전 철학'이 궁금합니다.**

"현장을 겪어보니 사고는 거창한 곳이 아니라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매일 발굴·제거하는 TBM과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 직원들에게도 매일 반복되는 작업에서 오는 '익숙함'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늘 강조합니다. 또한 본사와 현장, 협력회사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기준으로 움직이는 '소통의 일관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Q. IPARK현대산업개발의 안전관리 시스템 중 차별성 있는 사례를 소개해주세요.**

"지상과 지하의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살피는 'CCTV 관제 기반 안전관리', 안전 조치 비용을 제한 없이 집행하는 '한도 없는 안전 예산', 그리고 협력사가 자체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하도록 돕는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꼽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보다 자랑하고 싶은 건 현장 노동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촘촘한 시스템 작동을 통해 노동자들이 '내가 제기한 위험이 즉시 개선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 위에 더 탄탄하게 안전을 쌓아 올릴 수 있게 된 거죠."

**Q. 현장 실무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동료의 안전을 내 몸처럼 살피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상 징후가 보이면 망설이지 말고 작업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위험을 인지한 사람이 즉시 멈출 수 있어야 비로소 사고가 예방됩니다. '멈출 권한과 책임'은 모든 노동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그 판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입니다."

**Q. 안전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고성 중대재해 ZERO'가 일시적 성과를 넘어 하나의 일상으로 정착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법규 준수를 넘어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자율 안전문화'가 깊이 뿌리내려야 합니다.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개개인이 안전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호흡으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이를 통해 IPARK현대산업개발은 대한민국 건설업의 안전 표준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습니다."

Interview

# 창업보다 어려운 수성 안전으로 '지속 가능한 내일' 연다

건설하이콘(주) 김포공장



레미콘 생산 업체 건설하이콘(주)의 김포공장. 핵심 제조 설비인 배치플랜트(Batch Plant)와 분체류 저장용 사일로, 컨베이어 벨트가 시선을 압도한다. 거대한 설비 사이로 자재 운반용 중장비인 로더와 레미콘 운송 믹서트럭이 수시로 오고 간다. 김포공장에서 총 67명이 근무한다. 이 중 임직원은 19명. 나머지 48명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레미콘 운송을 책임지는 믹서트럭 운전원, 이른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다. 거대한 설비와 복잡한 동선, 복합적인 고용 구조는 안전 담보에 불리한 조건들이다. 더구나 레미콘 산업은 위험 요인이 산재한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건설하이콘 김포공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로 제약을 극복했다. 특히 이곳의 독자적인 위험성평가는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제조·기타(중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글. 홍난희 사진. 박현철

“  
김포공장은 중장비가 동원되는 여러 공정 중에서도 위험성이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핵심 위험'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

## ‘핵심 위험’ 선정해 집중 관리

김포공장은 건설하이콘의 본사가 위치한 핵심 사업장이다. 이곳에서 생산된 레미콘은 김포와 인천 지역에 공급되어 수도권 건설현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설하이콘 생산의 양대 축인 김포공장과 포천공장에서 공급하는 레미콘 물량은 하루 평균 500~3000㎥에 달한다.

김포공장의 생산라인은 총 8단계의 공정이며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공정의 시작은 '원재료 입고'다. 시멘트와 골재, 혼화제 등이 입고되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생산 시설로 옮긴다. 이어 배치플랜트에서 원재료를 정밀하게 계량하고 대형 믹서기로 혼합해 레미콘을 완성하는데, 이는 제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핵심적인 단계다. 완성된 제품은 믹서트럭에 실려 각 건설 현장으로 신속히 공급된다.

공정은 출하에서 끝나지 않는다. 운반을 마친 차량은 세척 과정을 거치고, 재생 및 기타 공정이 이어진다. 사용 후 남은 레미콘에서 모래와 자갈을 분리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선별하는 친환경적 단계다. 마지막으로 로더를 이용해 입고된 골재들을 동선별로 분리 적재하면 전체 공정이 마무리된다.

김포공장은 중장비가 동원되는 여러 공정 중에서도 위험성이 크고 발생 빈도가 높은 '핵심 위험'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와 믹서트럭 떨어짐 사고가 그 대상이다. 이는 레미콘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고위험군 사고로 자칫 중대재해로 직결될 수도 있다.

이에 김포공장은 컨베이어 벨트의 모든 회전체 부위에 방호울과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했다. 또 믹서트럭 호퍼(재료 투입구) 세척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고리 지급과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지하 골재 이송 터널처럼 통신이 어렵고 어두운 고위험 구역은 조도를 대폭 높여 시야를 확보했으며, 미승인 인원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안전문도 설치했다. 또 공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해 생산실에서 설비 가동 중 작업자 출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아울러 세차장 바닥에는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온수 배관을 설치했다. 이와 같이 건설하이콘은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작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 현장 맞춤 위험성 평가로 실행력 UP

김포공장은 안전 장치 완비와 더불어 위험성평가를 안전 활동의 핵심으로 꼽는다. 이곳의 차별화 포인트는 위험성평가의 '간소화'다. 이선표 대표이사는 "레미콘 제조 현장에서는 8대 공정 외에도 예기치 못한 설비 고장으로 인한 수리와 정비 등 수많은 긴급·비정형 작업이 발생한다"며 "이때마다 복잡한 기존 절차를 고수하면, 서류 작업에 치여 정작 중요한 작업 전 안전 확보 시기를 놓치기 쉽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한 위험성평가가 오히려 안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공장은 과감한 절차의 간소화를 선택했다. "이행하지 못할 제도는 과감하게 변경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유연한 경영 방침은 변화의 동력이 됐다. 우선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안전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되, 건설하이콘만의 '상시 위험성평가 양식'을 마련했다.



이 양식은 복잡한 계산식 대신 위험도를 '상·중·하'로 분류하는 직관적인 기법을 적용했다.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1~2장 내외로 간략히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의 행정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

현장에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다. 절차가 간편해지자 긴급 상황이나 비정형 작업 시에도 빠짐없이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실무자들이 위험성평가를 '어렵고 복잡한 숙제'가 아니라 '현장을 지키는 실무 도구'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 결과 현장 내 안전 조치 이행률이 크게 높아졌다.

김포공장 관계자는 "서류를 위한 안전이 아닌, 사람을 위한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실행력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체계적인 예산 관리, 아낌없는 안전 투자

체계적인 예산 관리도 돋보인다. 현행 법령상 제조업의 안전보건 예산 사용 기준은 건설업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매년 필요한 안전 예산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때로는 예산이 불합리하게 집행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건설하이콘 김포공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 관리 기준'을 정립했다.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이 명확하고 엄격하게 운영되는 건설업의 사례를 참조해 제조업 특성을 반영한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사용처를 투명하게 규정하고 집행의 정확도를 높였다.

핵심은 데이터에 기반한 예산 편성 기준이다. 건설하이콘은 지난 수년간 집행된 안전 관련 데이터를 정밀 분석해, 전년도 매출액의 0.2%를 매년 안전보건 예산으로 편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선표 대표이사는 "이 숫자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라, 실제 공장 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누적 데이터의 결과값이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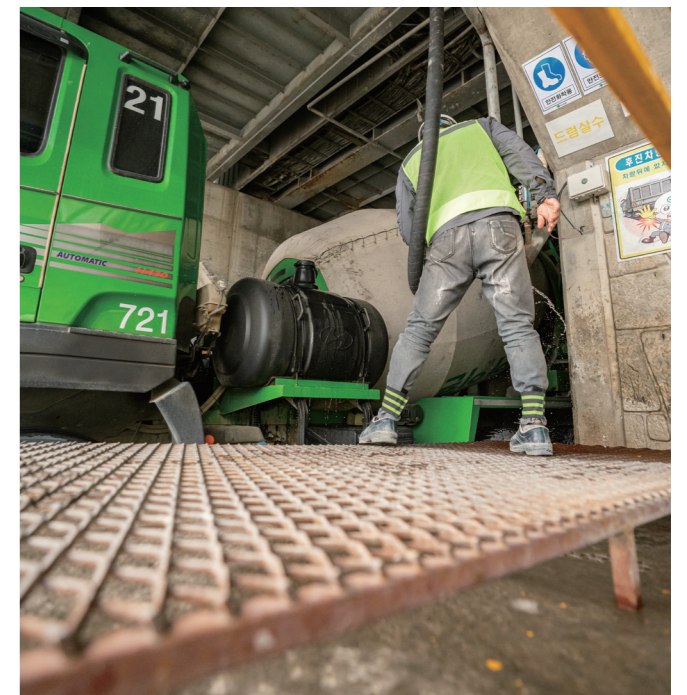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위한 '맞춤 안전 솔루션' 가동

김포공장의 특수한 인적 구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방식도 주목 받는다. 전체 구성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믹서트럭 운전원들은 개별사업자 신분이다. 임직원에 비해 안전 업무 지시나 관리 측면에서 모호한 지점에 놓이기 쉽다. 운전원들의 연령대가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었다. 김포공장도 운전원 중 만 60세 이상이 35%에 달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건설하이콘은 '현장 맞춤형 안전 솔루션'을 가동하고 있다.

우선 자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으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만을 규정한다. 관련 법보다 교육을 강화한 것이다. 또 운전원들이 스스로 현장의 위험 요소를 찾아 제안하는 '셀프 유해·위험 요인 발굴 이벤트'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고령 종사자를 위한 '체감형 안전 시설물' 보강에도 힘을 쏟는다. 노안이나 인지 능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보행자 동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표시했으며, 차량 통행 구간에는 경보 알림용 스피커를 설치했다. 특히 겨울철 고령 운전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넘어짐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하차 지점 등에 철망 발판을 설치하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이선표 대표이사는 "운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운전원들이 안전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투자와 소통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숫자로 증명한 성과...지난 5년 중대재해 제로

노력의 결과는 숫자로 나타났다. 김포공장의 위험 요인 발굴 건수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3배 급증했다. 회사 측은 '가장 단순한 것이 최선(Simple is Best)'이라는 기조 아래 누구나 쉽게 제안할 수 있는 건의함을 설치하는 등 심리적 문턱을 낮춘 것이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또 매월 진행되는 '안전 포상제도'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안전 구호 공모나 위험 요인 발굴에 참여한 이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선표 대표이사는 "작은 포상이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다"며 "관리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의 위험 요인들이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는 현장의 건의들을 실질적 개선으로 연결시켰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진욱 대리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탈부착형 안전난간대'다. 골재와 모래를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 주변엔 잔여물이 상시 쌓이는데, 이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으면 설비 고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기존의 고정식 난간대가 청소 작업을 방해했다.

작업자들은 난간을 해체한 뒤 청소를 하고 재설치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했고, 이 번거로운 과정에서 재설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으면 추락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생겼다. 이에 회사는 박대리의 제안에 따라 '탈부착형 안전난간대'를 도입했다. 그 결과 청소 효율은 높이고 추락 위험은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 사례는 지난해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핵심 성과로 인정받았다. 건설하이콘 김포공장에서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경영책임자의 '신념', 노동자의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이 삼위일체를 이룬 결과다.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건 CEO는 안전보건, 소통과 의식 변화, 과감한 혁신이라는 3대 키워드를 현장에 주문했다. 여기에 노동자들은 자발적 참여로 호응했다. 회사는 안전 교육과 설비의 유해·위험 요인 제거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완전한 안전은 불가능하다"는 굳은 의지로 현장을 바꿔나간 것이다.

“  
**건설하이콘 김포공장에서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경영책임자의  
 '신념', 노동자의 '참여',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본'이  
 삼위일체를 이룬 결과다.**  
 ”



안심 일터를 향한 혁신은 진행 중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 나라나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이다. 이 말은 건설하이콘의 안전경영 철학과 맞닿아 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선 반드시 안전을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건설하이콘은 '모방은 창조 어머니'라는 격언대로 타사의 안전 체계를 끊임없이 벤치마킹해 안전 시스템을 최적화하며 고도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 아래, 전 노동자의 참여를 독려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다. 김포 공장 역시 이 기조에 발맞춰 '중대재해 제로'라는 기록 너머를 바라보며, 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 한지와 대나무에서 태어난 한 자락의 바람, 긴 세월 여름을 지켜오다

우리 선조들에게 부채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선비의 손에서는 풍류가 되고, 명창의 손에서는 박자가 되었으며, 임금의 단옷날 신하에게 건네면 단오선(端午扇)이라는 정성이 되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부채를 두고 바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마음을 다스리는 물건이라 했다. 그 가운데서도 합죽선(合竹扇)은 격이 가장 높은 부채이다. 0.38밀리미터로 깎아낸 대나무 껍질 두 쪽을 마주 붙여 한 살을 만든다 해서 합죽선이라 부른다. 한 자루에 손이 가는 횟수만 150번이 넘는다.

# 긴 세월 여름을 지켜오다

김동식 선자장(扇子匠)은 일흔 해째 합죽선을 만들고 있다. 선자장은 전통 부채를 만드는 기술과 그 기능을 보유한 장인이다. 외고조부 라경옥에서 시작해 고종황제에게 합죽선을 진상하던 외조부 라학천을 거쳐 열네 살 소년에게로 건너온 가업은, 이제 5대째에 이르렀다. 2015년 '선자장'이 국가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되며 그가 첫 보유자가 되었다.

# FIELD REPORT

## 전통 방식으로 우리 부채의 대를 이어 가는

### 선자장 김동식의 합죽선 공방

디지털과 인공지능의 시대에 사람들은 다시 손끝의 무게와 아날로그의 결을 그리워한다. 전북 전주에 자리 잡은 작은 작업실, 사각사각 대나무 깎이는 소리가 번지는 그 자리에서 한 자루의 부채에 깃든 일흔 해의 여름을 들여다본다.



### 곧은 대나무가 부채가 되는 자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김동식 선자장의 작업실 '동성공예'가 있다. 입구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사각사각, 대나무가 칼날에 깎여 나가는 소리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마룻바닥의 방목 위에는 칼과 줄, 인두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벽 쪽에는 작업을 기다리는 부채살이 다발로 쌓여 있다. 부채 한 자루를 만드는 데 필요한 100여 가지 도구가 모두 그의 손이 닿는 자리에 있다. 일흔 해를 한자리에서 보낸 사람의 작업실답게 모든 도구가 손에 익은 거리만큼만 떨어져 있다.

한 자루의 부채에는 사계의 시간이 깃든다. 10월이면 담양, 구례, 순천을 돌며 한 해 동안 쓸 왕대를 고르고, 겨울 들머리부터 이듬해 초여름까지 본격 작업한다. 방 안에는 아교풀의 열은 냄새와 한지 향, 잘 마른 대나무의 청량한 기운이 차곡차곡 겹친다. 작업대 위에서는 어제 깎다 둔 살 한 묶음과 오늘 풀칠을 끝낸 살 한 묶음이 나란히 놓여 어제와 오늘이 가만히 만나고 있다. 오랫동안 홀로 작업실을 지켜온 그의 곁에는 이제 아들 김대성과 며느리 장현정 두 이수자가 함께 자리한다. 일흔 해의 무게가 깔린 자리는 그렇게 단단하면서도 잔잔했다.

“  
한 자루의 부채에는  
사계의 시간이 깃든다.  
10월이면 담양, 구례, 순천을  
돌며 한 해 동안 쓸  
왕대를 고르고,  
겨울 들머리부터  
이듬해 초여름까지  
본격 작업한다.”



“  
전주는 예로부터  
합죽선으로 유명했다.”  
”

### 외가 마루에서 시작된 부채 제작 인생

전주는 예로부터 합죽선으로 유명했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이 자리한 전주에는 부채를 제작하던 선자청(扇子廳) 있었는데 이곳에서 만든 부채는 임금에게 진상되었다. 김동식 선자장이 부채를 배웠던 그의 외갓집도 전주 인후동 가재미 마을에 있었다. 오래전부터 부채 생산을 책임지던 동네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사람들은 마을 단위로 모여 부채를 만들었다. 도배하는 이도, 광을 내는 이도, 살을 깎는 이도 모두 한마을에 살며 손을 모았다. 김 선자장의 가업은 외고조부 라경옥에서 시작됐다. 이후 외조부 라학천, 외삼촌 라태순을 거쳐 1956년 열네 살 소년에게로 건너왔다. 어른들의 “숨씨가 좋다”는 말 한마디가 그의 평생을 결정했다.

전주에서는 1970년대 후반 한 해에 4만여 자루의 부채가 만들어졌다. 호시절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위기가 닥쳤다. 선풍기와 에어컨이 보급되고 값싼 기계 부채가 밀려든 것이다. 부채를 만들던 사람들이 다른 일을 찾아 떠났다. 하지만 그는 크나큰 변화에도 자리를 꿋꿋이 지켰다. 그런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1996년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 일을 놓아야 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때 친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친구는 큰돈을 내놓으며 절대 부채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고 간청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더라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은, 괜히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2007년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0호 선자장으로 지정된 그는 2015년 선자장이 국가무형문화재(제128호)로 승격되면서 첫 보유자가 되었다. 관련 자료를 모으고 보고서를 발간해 지방무형문화재에 머물렀던 선자장의 가치를 국가 차원의 유산으로 확장시킨 주인공이기도 하다.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선자장의 기틀을 직접 닦았다는 자부심은 전통의 맥이 끊겨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어진다.



### 0.38밀리미터, 아흔 조각이 부채가 되기까지

합죽선의 핵심은 이름 그대로 ‘합죽(合竹)’이다. 대나무 걸대를 머리카락 네댓 가닥 두께인 0.38밀리미터로 얇게 깎아 두 쪽을 붙여 한 살을 만든다. 살이 마흔인 사십선(四十扇) 한 자루는 작은 부속까지 모두 더하면 아흔 조각으로 이루어진다. 그 조각 하나하나가 두께도, 면도, 결도 똑같아야 한다. 어느 한쪽이 두껍거나 약하면 부채는 비틀어지고 살이 벌어진다. 그가 쓰는 것은 3년생 왕대다. 손잡이가 되는 등 부분에는 상아나 흑단, 대추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가 들어가고 부채 면에는 전주 한지를 입힌다. 일본과 중국의 접부채는 속대만 써서 가볍지만 갈라지기 쉽고 유럽의 부채는 짐승 뼈와 뿔을 깎아 화려하다. 합죽선은 걸대 두 쪽을 마주 붙인 덕에 탄력이 좋고 손에 잡히는 맛이 묵직하다.

“물기만 조심하면 100년, 300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합죽선은 아무지게 만든 부채입니다.” 합죽선의 제작 과정은 흔히 2부(골선부·수장부) 6방(합죽방·정련방·낙죽방·광방·도배방·사복방)으로 나뉜다. 골선부는 부채의 골격을 만드는 과정으로, 대나무를 쪼개고 껍질 두 쪽을 부레풀로 맞붙여 부챗살을 만드는 합죽방, 합죽된 살을 일정한 두께와 형태로 다듬는 정련방으로 구성된다.

수장부는 부챗살과 변죽에 인두로 매화·박쥐 등의 문양을 그려 넣는 낙죽방, 부채의 외형을 매끄럽게 다듬는 광방, 부챗살에 종이를 붙이는 도배방, 사복으로 부채머리를 고정하는 사복방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자루의 부채를 완성하기까지 여섯 개의 공방, 여러 장인의 손길을 거쳐야 했다. 지금은 이들 과정을 한 사람이 모두 한다. 또 풀칠에 20일, 대나무 말리는 데 10일이 걸린다. 한 자루의 부채가 탄생하기까지 한 달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작업은 살 깎기다. 두께와 면을 똑같이 깎는 단계에서 부채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단단한 대나무를 쪼개고 다듬기 위해 잘 드는 칼을 쓰기 때문에 감각을 집중해야만 한다. 이처럼 날카로운 도구와 쪼개진 대나무를 다루는 공정이 많아, 베이거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합죽선 한 개가 세상에 나오는 데는 그만큼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 손에서 손으로, 대를 이어 전해지는 청량한 바람

일흔 해 동안 김동식 선자장은 전통 부채 장인의 자리를 홀로 지켰다. 함께 부채를 빚던 손들이 하나둘 떠나간 자리에 그의 칼만은 끝까지 남았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아들과 며느리가 정식 이수자로 그의 옆에서 함께한다. 30대 중반에 이 길에 들어선 아들 김대성은 어느덧 스무 해 가까이 부채를 만들고 있다. 그는 한 자루에 깃든 아흔 조각, 그 부속 하나하나의 성질과 역할을 매일 새로 깨우쳐 가는 일이 재미있다고 말한다. 어려운 만큼 빠져들고, 그 어려운 일을 해내는 데서 즐거움이 온다는 것이다. 하루가 금방 간다는 그의 말에 담긴 열정은 아버지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아들의 결심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전통을 이어 간다는 것은 우리 것을 지켜 가는 일이고, 그것처럼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김동식 선자장이 자신을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부채를 들고 길을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채는 누군가의 더위를 식혀 주기 위한 물건이다. 평생 한자리에서 부채를 만들어 온 그의 일흔 해는, 그래서 사람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해 온 시간이기도 하다. 사각사각. 오늘도 대나무가 부채로 변해 가는 소리가 잔잔히 번진다.

“부채는 누군가의 더위를 식혀 주기 위한 물건이다. 평생 한자리에서 부채를 만들어 온 그의 일흔 해는, 그래서 사람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해 온 시간이기도 하다.”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 2026 산업안전보건전의 달

7.6.(월) ~ 7.10.(금) / KINTEX 제2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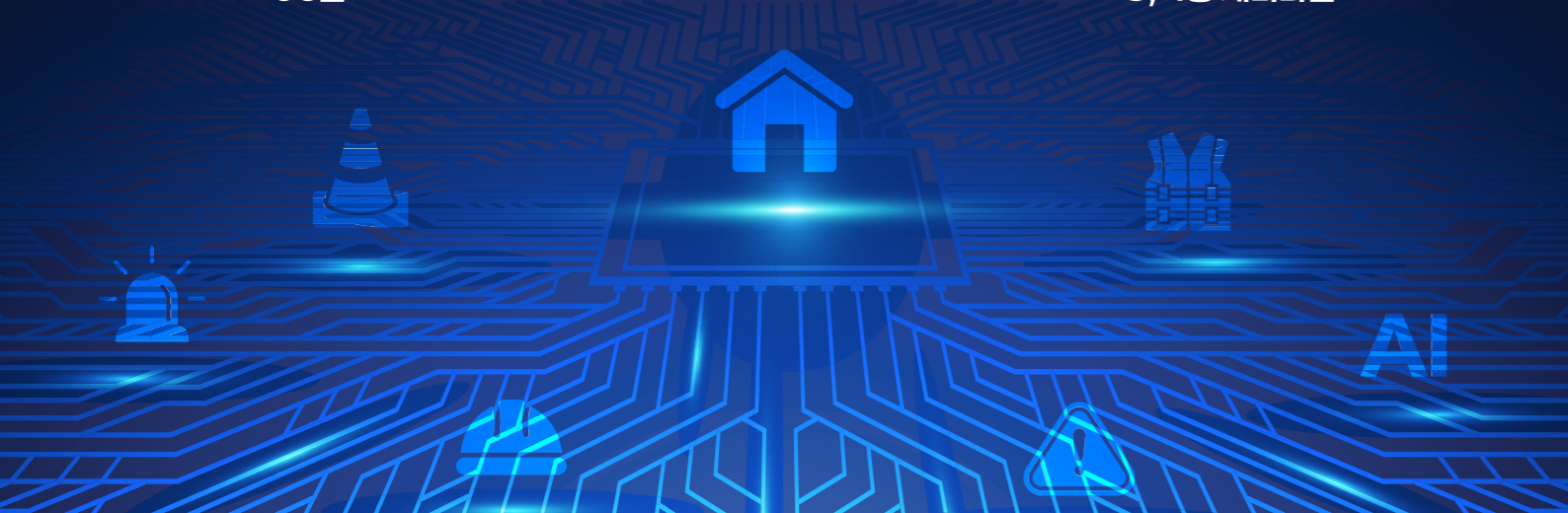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  
7.6.(월)  
6C홀

SI안전보건박람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7.6.(월) ~ 7.9.(목)  
7,8홀

안전보건세미나·  
우수사례 발표대회  
7.6.(월) ~ 7.10.(금)  
3,4층 세미나실

노무제공자, 근로자, 예술인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고용·산재보험은  
필수!



# 안전 리더십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안전을 ‘주도하게 만드는 것’이다

글. 문광수 교수\_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안전 리더십은 ‘더 엄격한 단속’이 아니라, 현장이 스스로 안전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기업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실행하면 사고는 어느 정도 줄어든다. 하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인 후에는 사고 감소 속도가 둔화하고 ‘관리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오는 경우가 있다. 관리 체계 구축과 실행을 넘어 높은 수준의 안전 문화로 자리 잡게 하려면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안전 리더십은 ‘더 엄격한 단속’이 아니라, 현장이 스스로 안전을 ‘자기 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즉 타율(다른 사람이 시켜서 하는 안전)에서 자율(스스로 지키는 안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리드해야 안전문화가 증진된다

아직도 안전을 결과, 즉 재해율(KPI), 사고 건수(LTI)로 관리하는 기업이 많다. 물론 궁극적으로 재해율과 같은 안전 평가지표는 중요하지만, 재해율을 강조하는 것이 안전문화 증진에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무재해 같은 ‘결과 중심의 관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게 하고, 사고가 나지 않으면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부작용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면 조직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안 좋은 일에 책임을 질 사람을 찾아서 처벌하게 되는 함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리더는 결과(outcome)보다는 과정(process), 즉 안전이 유지되도록 만드는 일상적 실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다음 같은 과정**이 누적된 결과이다.

위험성평가는 종이가 아니라 작업 전 대화로 이어지고, 확인한다. 작업허가(PPTWI)와 격리(LOTO)가 ‘발행’에 그치지 않고 검증까지 이뤄진다. 작업 변경이나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 멈추고, 다시 위험성평가를 하고 작업허가를 받는다. 아차사고나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보고해 공유하고, 이를 분석하여 학습하고 관련 사항들을 개선한다.

안전 리더십은 이런 과정들을 ‘매일 반복하는 표준’으로 만들고, 그 과정이 현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안전 방향으로 정렬되게 만드는 기술이다.

## ‘지시’가 아니라 ‘교육’과 ‘경청’이 사람을 움직인다

리더는 ‘명령’보다 ‘교육’을 해야 한다. 단순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왜 이 통제나 조치가 필요한지, 어떤 위험을 줄이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이해하면 현장은 상황에 맞게 스스로 적용(적용)할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면 체크리스트를 통과하기 위한 ‘형식 준수’로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또 하나, 리더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듣는 것이다. 생산성이 강조되고 작업 압박이 커질수록 관리자가 ‘먼저 말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먼저 듣는 리더십(Active listening)이 문제의 원인을 더 빨리 찾고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규정을 안 지켰어?” → “어느 지점에서 지키기 어려웠어?” “누가 잘못했어?” → “어떤 상황이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 “다음부터 조심” → “다음에는 무엇을 바꿔야 잘 준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현장 노동자들의 방어적 침묵을 줄이고 (보고가 살아남),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작업 조건, 시스템’으로 개선의 초점을 이동시키며, 현장 노동자들을 스스로 해결책 마련에 참여하게 만들 수 있다.

## 안전문화의 핵심은 ‘오너십(ownership)’이다

안전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오너십(주인 의식)을 만들어야 한다. 사람들은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선택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지키게 된다. 무엇을 얼마나 해야 할지 기대하는 바가 명확하고, 목표 달성 방식에 일정 수준의 개인 통제감이 있을 때, 노동자들이 그 과정을 ‘자기 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진다. 오너십을 만드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다.

**참여 설계:** 작업자, 협력사가 통제 수단 선정에 참여하게 한다(현장 적용이 가능한가)를 같이 검증

**합리적 근거 제공:** ‘규정이니까’가 아니라 ‘이 통제, 조치가 이렇게 위험을 줄인다’는 것을 항상 설명한다.

**선택을 허용하는 범위 설정:** 결과와 기준은 명확히 하되, 방법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단, 핵심 장벽은 고정).

중요한 것은 ‘자율=방임’이 아니라, 안전 기준(Expectation)과 장벽(Barrier)은 분명히 하되, 그 안에서 현장이 스스로 결정할 여지를 주는 것이다.

## 안전 리더십을 ‘현장 행동’으로 바꾸는 10가지 습관

안전 심리학자 Geller는 자율적 안전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의 습관 10가지에 대해 제시했다.

- 01 **과정에 집중한다:** 결과 보고보다 “오늘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먼저 묻는다.
- 02 **교육한다:** 절차를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는 것’으로 만든다.
- 03 **무조건형(단정) 지시를 피한다:** ‘무조건 이렇게’ 대신 ‘원칙+상황 적용’으로 안내(예외의 상황을 같이 설계)한다.
- 04 **먼저 듣는다:** 불평·불만을 ‘저항’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신호’로 취급한다.
- 05 **오너십을 촉진한다:** 참여·근거·자기 통제감을 통해 ‘자발적 준수’를 만든다.
- 06 **선택을 장려한다:** 안전한 선택지를 여러 개 준비하고(대안 설계, 현장에서 고르게 한다.
- 07 **기대를 명확히 한다:** ‘안전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 작업에서 준수가 필요한 3가지’처럼 구체화한다.
- 08 **확신 있게 하되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리더는 방향을 확신 있게 제시하되, ‘모른다, 추가 정보 필요’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09 **숫자 너머를 본다:** 재해율만 보지 말고, 피로·번아웃·관계 갈등 같은 선행 신호를 관리한다.
- 10 **사람을 더 ‘세밀하게’ 본다:** 흑백 논리(‘안전한 사람/불안전한 사람’) 대신, 상황·역량·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행동을 관찰하고 코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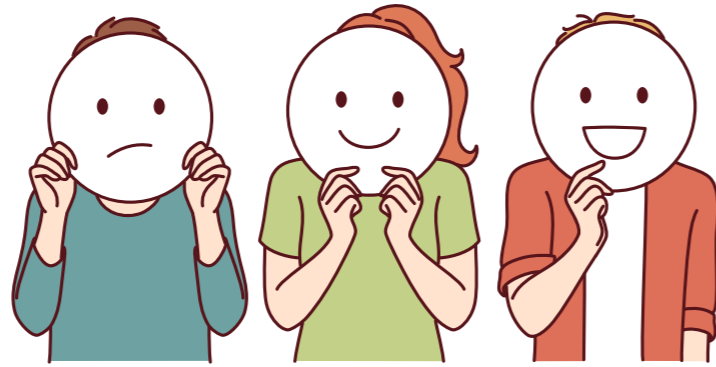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 활동을 ‘남이 시켜서’ 하는 순간, 안전은 비용이 된다.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지시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안전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통제한다’고 느끼는 순간, 안전은 역량이 된다. 안전문화 증진의 본질은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을 주도’하게 하는 것이다.

### 참고문헌

E. Scott Geller, “10 Leadership Qualities for a Total Safety Culture: Safety Management is Not Enough,” Professional Safety, May 2000.

# 감정노동, 회사의 책임을 생각한다

글. 최민 \_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노동을 말합니다. 그러니 특정 직종, 업종이 감정노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 응대 업무에서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노동은 그 자체로 중요하고 고유한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고객 응대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과 표현을 자제하면서, 필요한 정서적 반응을 가장하는 것은 무엇보다 고객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서입니다. 이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요. 정말 많은 상품과 서비스가 경쟁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부드럽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런 일을 잘해내는 데에는 경험과 기술도 필요하죠. 특히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고객을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감정노동 자체가 나쁜 말처럼 쓰이기도 하지만, 실은 소비자의 경험을 좌우하는 요소이자 노동자의 고유한 스킬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회사의 규범에 따라 노동자가 자신의 감정 표현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진상' 짓, 심지어 폭력까지 참고 감당해야 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세요.

저희에게 개 물림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고객의 소리'에 민원으로 "서비스 받는 동안 제게 안겨 있던 반려견이 낯선 사람을 보고 몇 번 짖었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뒷걸음치시더군요"라고 올라온 거예요. 우리는 뒷걸음도 치면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고객들에게 보내는 문자에 이 문제를 넣어 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개를 보호해주세요'라고 올린 거예요. -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고객이 40대 중후반 정도였고, 설치기사가 55세가 넘었는데, 반말부터 시작해서 쌍욕을, 1시간 내내 하는 녹취록이 노동조합에 신고된 적이 있어요. 그걸 회사에 그대로 보냈는데, 고객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었죠. 그 노동자를 해당 고객 업무에서 배제한 게 다였어요. 그 자리에 다른 기사가 들어가는 거죠. 반대로 고객이 기사에 대해 항의하면, 우리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거의 바로 별점 해당이예요.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 기사

손님이 정말 심한 짓을 하고 그러면 센터에 연락해서 운전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 회사에서는 참고 가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게 참고 하다 손님한테 맞는 경우도 생기죠. 술 취한 고객이 토할 것 같다고 차를 세워달라 했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라서 세우지 못하고 있던 사이 구토했다고 세탁비, 세차비 물어달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 대리운전기사

“**회사는 서비스를 위해 감정 표현을 통제하더라도 그 정도와 범위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고객 응대 과정을 감시하는 대신 진상 고객 등을 제어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고객의 집에서 짚는 개를 보고 놀라도 뒷걸음치지 말고 웃어야 하는 상황, 욕설과 폭언에 노출되어도 정당한 분노를 표하거나 서비스를 바로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은 고객의 편안함을 위해 노동자는 감정 표현을 자제하다 적절한 방어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사례는 비밀비재합니다. 온갖 업종에서 진상 고객에게 맞선 무용담도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정노동 관련 캠페인은 주로 고객을 향합니다. '폭언은 마음의 흥기. 따뜻한 말 한마디는 마음의 온기'와 같은 표어가 내걸리고, '감정노동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객과 노동자의 대립으로 감정노동을 바라볼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감정을 규율해서 감정노동을 발생시키고, 노동자의 감정노동 덕에 서비스 판매가 원활해지는 '회사'입니다. 노동자의 감정을 지나치게 통제해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스스로 방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도 회사입니다.

우리가 앞서 만난 이야기들 속에도 회사가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내는 것조차 꺼리는 회사, 노동자에게 폭력을 가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중단할 생각이 없는 회사, '웬만하면 참고 하라'고 강요하는 회사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회사의 역할은 표어를 걸고, 안내 방송을 내보내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정노동의 빈도와 강도 못지 않게, 회사의 정책이 감정노동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손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위해 감정 표현을 통제하더라도 그 정도와 범위에 대한 권한과 자율성을 노동자에게 부여하고, 고객 응대 과정을 감시하는 대신 진상 고객 등을 제어하는 절차를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제 역할을 할 때 고객의 폭언·폭력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노동은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과정에 수반되는 '할 만한 일'이 됩니다.

감정노동과 감정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의 태도는 다른 데서도 드러납니다. 콜센터와 같이 고객을 직접 접촉하면서 높은 수준의 감정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가장 먼저 하청업체에 외주화됩니다. 앞서 예를 든 가전제품 수리, 점검 업무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처해 있음에도 더 높은 수준의 감시와 통제를 받기 일쑤입니다. 여기에도 회사의 책임과 역할이 있습니다. 본래의 업무에 더해 상품과 서비스 판매 과정을 매끄럽게 만들기 위해 '감정노동'까지 하는 노동자들을 충분히 존중하며 보상하고, 이들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다양한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감정노동자 보호 캠페인을 부르짖기에 앞서 회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노동자는 감정노동을 하더라도 폭력까지 감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치를 직접 혹은 동료들과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나와 동료들에게 감정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증상이 있지 않은지 서로 살피는 것도 필요합니다. 회사는 피해 노동자의 업무 전환이나 업무시간 단축 등은 물론 필요한 경우 상담이나 치료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노동자는 일과 후 취미 활동이나 운동 등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소비자로서 나는 다른 고객 응대 노동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까지 돌아볼 수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 본격 폭염·장마 앞둔 6월 현장 안전의 적 '감전' 주의보

글. 홍난희



여름은 감전 사고가 발생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형성되는 계절이다. 장마로 인한 높은 습도는 누전의 도화선이 되고, 폭염으로 인한 땀에 젖은 피부는 인체 저항을 떨어뜨려 낮은 전압에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신체 노출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작업 현장과 일상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더 큰 문제는 전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며, 색깔·소리·냄새도 없다는 점이다. 위험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후이다. 전기 안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본격적인 폭염과 장마를 앞둔 6월, 감전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과 점검에 그 어느 때보다 힘써야 할 시기다.

“

**전기기기 정비 및 수리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

## 절연과 접지, 전기 안전의 기본

감전은 전기가 흐르는 물체에 몸이 닿아 체내로 전류가 통과하며 상해를 입는 현상이다. 수분이 60% 이상인 인체는 전기가 아주 잘 통하는 전도체다. 전류가 몸을 통과하는 순간 발생하는 강력한 열은 인체 조직에 심각한 손상과 화상을 입힌다. 특히 심장에 전달된 충격은 심실세동과 호흡 정지를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다. 이처럼 위험한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전기설비의 접지 상태 확인이다. 접지는 누전 발생 시 전류를 땅으로 흘려보내 인체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현장 관리자는 접지선 연결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누전차단기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이동형 전기 기계·기구에는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연결해야 한다. 전기기기 정비 및 수리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작업 중' 표지판을 게시해야 한다. 이는 감전 예방을 위한 철칙이다. 잠금장치(LOTO: Lock-Out, Tag-Out) 사용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절연 상태를 완벽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장마가 시작되기 전 현장의 임시 분전반과 이동형 전기기구의 외함 절연 상태를 전수 점검하라고 권고한다. 특히 이동식 드릴이나 연삭기처럼 이동이 잦은 장비는 전선이 꺾이거나 눌러 피복이 벗겨지기 쉬운데, 이렇게 손상된 틈으로 습기가 침투하면 작업자의 몸이 곧 전류의 통로가 된다. 미세한 균열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한다.

## 젖은 손 조작은 금물...보호구 착용 생활화

현장 안전의 완성은 결국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에 달려 있다.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기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땀과 습기로 가득한 작업 환경에서는 신체 저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만큼, 절연 보호구라는 방패가 반드시 필요하다. 작업 환경의 전압 등급에 적합한 절연장갑과 절연화 착용을 의무화하고,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절연장갑의 경우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세한 구멍이나 스크래치로도 전기가 침투할 수 있으므로, 작업 전 공기를 불어 넣어 새는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또 땀에 젖은 보호구는 절연 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므로 여분을 준비해 교대로 착용하거나 항상 건조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작업자는 전도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계, 반지 등 금속 장신구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야외 용접 작업이나 전기 설비 보수 작업 중지가 원칙이다.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격 방지기를 설치하고 방수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작업 투입 전 동료의 보호구 착용 상태와 복장을 서로 확인해 주는 '크로스체크'도 안전문화의 하나로 정착시켜야 한다. 동료의 눈을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전 센서가 되기 때문이다.

“

**불행히도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만 한다.**

”

### 현장 안전을 지키는 5가지 필수 수칙

- 반드시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시작한다.
- 잠금장치(LOTO)를 설치해 오조작을 방지한다.
-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기기를 조작한다.
- 규격에 맞는 절연 보호구를 빠짐없이 착용한다.
- 전선과 차단기 상태를 작업 전·중·후 살핀다.



##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

불행히도 감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골든타임을 확보해야만 한다. 우선 환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으며 즉시 전원을 차단한다. 차단이 어렵다면 고무장갑이나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부도체를 이용해 환자를 전원으로부터 떼어놓는다. 이때 구조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마른 바닥에 서거나 절연장화를 착용해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후 119에 신고하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다. 호흡과 맥박이 없다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다.

현장에서 재해자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감전은 수 시간, 혹은 며칠 뒤 근육 괴사로 인한 신부전증이나 부정맥 등 치명적인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지체 없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신체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의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 양주 채석장 붕괴 참사가 묻는 ‘실질적 지배’의 무게

글. 이현정\_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검사)



## 예견된 비극과 배일에 가려진 경영책임자

2022년 1월 29일 오전 9시 50분경,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A사의 거대한 골재 채취장에서 참혹한 비극이 발생했다. 약 30만㎡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토사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며 하부에서 천공 작업<sup>1)</sup>과 굴착기를 이용한 소할 작업<sup>2)</sup>을 진행하던 세 명의 노동자를 그대로 덮친 것이다. 이들은 수십만 톤의 흙과 돌무더기가 가슴과 허부를 강하게 짓눌러, 다발성 외상 및 압착성 질식으로 현장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본격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중대재해 사건이었다. 더구나 위험 신호가 수십 년간 이어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연간 생산량 달성이라는 명분 아래 무리한 작업이 강행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이목은 자연스럽게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진과 그룹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약 4년이 흐른 2026년 2월 10일, 1심 법원의 판결은 세간의 예상과는 다소 다른 궤적을 그렸다. 재판부는 현장소장과 안전담당자 등 현장 관리자들에겐 징역형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기소된 그룹 회장 B씨와 본사 대표이사 C씨, 그리고 최고안전책임자(CSO) D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법적 정의와 책임의 한계, 그리고 기업 내 권한 위임과 실질적 안전보건 지배구조에 대해 법리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 엇갈린 법원의 심판:

### 법원은 왜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는가

사건이 일어난 A사의 채석장은 1997년부터 조쇄 공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폐기물인 석분토(슬러지)를 부대시설 사면에 쏟아부어 대규모 야적장으로 운영해 온 곳이다. 2022년 1월 사고 당시, 이 야적장에는 사업소의 1년치 생산량에 맞먹는 무려 316만㎡의 석분토가 산처럼 쌓여 거대한 사면을 이루고 있었다. 비극의 단초는 골재 가채량 고갈과 신규 채석장 허가 지연이었다. A사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상부부터의 계단식 굴착 방식을 포기하고, 즉각적인 가채량 확보를 위해 석분토 야적장 하부를 굴착해 그 밑의 암반에서 채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구 안전보건규칙은 수분을 머금은 석분토 지반을 ‘습지’로 분류하고, 붕괴 위험이 큰 습지의 굴착면 기울기를 4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sup>3)</sup>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석분토 지반은 ‘건지’에 해당하고, 구 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기울기 기준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 안전보건규칙에 ‘습지’와 ‘건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이 사건 석분토의 함수율, 붕괴 구간 주변 부에서 지하수가 유출되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습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사건 석분토 야적장의 경우 하부에서 지속적으로 채석과 발파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상부 석분토 사면의 기울기가 점차 가팔라졌고, 사고 직전에는 법적 허용 한계치를 크게 초과한 약 54도에 달할 정도로 불안정해졌다.

사고 조짐도 있었다. 사고 발생 2개월 전인 2021년 11월경 지반에 3m 길이의 인장균열<sup>4)</sup>이 발생했고, 2021년 11월 25일에는 하부 채석장 좌측 상단에서 약 5585㎡의 석분토가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현장소장 E씨를 비롯한 관리자들은 비용을 절감하면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흙막이 지보공 설치나 사면 보강공사 등과 같은 본질적인 붕괴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위험 반경 내에서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강행시켰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현장소장 E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양주사업소 안전담당자 F씨, 관리팀장 G씨, 작업반장 H씨 등 실무진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붕괴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현장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그룹 회장 B씨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회장 B씨가 A사가 속한 그룹의 최고경영자로서 정례보고를 통해 연간 생산목표를 상향 결정하고, 안전 예산과 인사 배치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경영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근거로 그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법령 해석상 이 법에서 예정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배척했다.

법 제정 당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을 보면,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상법상 대표권을 행사하는 대표이사를 상정하고 제정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회장 B씨가 단지 경영상 영향력을 행사한 수준을 넘어, 대표이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들 및 같은 법 시행령 해당 규정들을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장 B씨가 이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1 천공기를 사용하여 암석 표면에 폭약을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작업
- 2 브레이커(breaker)를 사용하여 발파된 암석을 작은 크기로 쪼개는 작업
- 3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8조 제1항 및 [별표 11]
- 4 사면과 평행으로 형성된 균열로, 지표면으로부터 일정한 깊이까지 받는 인장(引張, 어떤 힘이 물체의 중심축에 평행하게 바깥 방향으로 작용할 때 물체가 늘어지는 현상) 때문에 점착력이 있는 흙에 발생하는 것으로 붕괴에 취약하다.

동시에 법원은 대표이사 C씨와 CSO D씨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대표이사 C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대표이사 C씨가 석분토 야적장 하부 채석장에서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는지, 업무상과실치사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에 대해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대표이사 C씨는 본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골재사업장 외에 9개의 골재사업장을 경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골재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채석작업의 방법 등은 현장소장 E씨가 결정하고 안전보건관리 등도 현장소장이 총괄한 점, C씨가 이 사건 전날 해당 사업장에 방문했을 때 일부 사면 붕괴 현장을 목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법령에 규정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거나 이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로만 기소된 CSO D씨의 경우 법원은 공소 사실에 기재된 업무상 주의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D씨가 이 사건 안전보건경영책임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점에 비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학계와 산업계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는 “누가 진정한 경영책임자인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 풀이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해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이사’라는 점을 천명한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 외에 그룹 총수나 회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 단순히 경영관리회의에서 보고받거나 이익 창출을 위한 포괄적인 지시를 내린 최고경영자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막연한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다.

**압착성 질식에서 밀폐공간 질식까지, 엄습하는 죽음을 막으려면**

A사 채석장 사고의 참혹함을 더하는 것은 사망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사인이었다. 거대한 토사에 매몰된 이들은 다발성 골절 뿐만 아니라, 수만 톤의 흙이 흉부를 강하게 짓누르면서 횡격막의 팽창과 수축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발생한 압착성 질식으로 생을 마감했다. 이러한 물리적 하중에 의한 압착성 질식은 현장에서 동료들이 사고를 목격하더라도 2차 붕괴의 위험 때문에 즉각적인 구조에 나서기 어려우며, 구조의 골든타임<sup>5</sup>조차 허락하지 않는 가장 공포스러운 산업재해 중 하나다. 또한 물리적 압착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스와 산소 결핍에 의한 밀폐공간 화학적 질식 예방 역시 산업현장의 고질적 과제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일반적인 산업재해와 달리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재해자의 52.9%가 사망했다.

이 두 가지 질식 사고는 발생 기전이 물리적 요인과 화학적 요인으로 뚜렷이 구분되지만, 본질적인 공통점을 지닌다. 철저한 사전 위험성평가의 부재와 현장의 안전보건 수칙 미준수가 빛어낸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러한 치명적인 질식 및 매몰 사고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과학적 기준과 강력한 현장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토석 채취장이나 건설현장의 굴착 작업에서 지반 붕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반의 물리적 성질에 맞게 굴착면의 기울기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제339조 제1항에서 지반의 종류에 따라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 1:0.5에서 1:1.8까지의 기울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의 굴착공사 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굴착 작업계획 수립 전에 반드시 굴착 장소 및 주변 지반에 대해 균열이 없는지, 지반의 상태는 어떠한지 조사해야 한다. 또, 토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중·후 수시로 굴착 경사면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정화조,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의 화학적 질식은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 특히 많이 발생한다. 미생물의 급격한 번식과 발효, 부패 작용은 공간 내의 산소를 순식간에 고갈시키고, 황화수소(H<sub>2</sub>S), 메탄, 일산화탄소 등 맹독성 유해가스를 대량으로 뿜어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매년 '질식사고 예방 집중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은 생명 유지의 마지노선인 '질식 예방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첫째**, 작업 전 반드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밀폐공간 진입 전 지정된 측정자가 내부 공기를 측정해 적정 공기 상태(산소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일산화탄소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등)인지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둘째**, 작업 전은 물론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슬러지나 오물을 치우는 과정에서 바닥에 고여 있던 황화수소<sup>6</sup>나 메탄가스가 교반 작용에 의해 순식간에 공기 중으로 폭발적으로 방출될 수 있다. 따라서 진입 전 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진행되는 내내 환기팬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신선한 외부 공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셋째**, 안전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외부 감시인을 전담 배치해야 한다. 밀폐공간 진입 시 외부에서 공기를 공급하는 송기마스크나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내부 작업자의 이상 여부를 살피는 감시인을 외부에 단독으로 배치해, 사고 발생 시 즉각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기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쓰러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보호장비 없이 맨몸으로 뛰어들었다가 사망하는 2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형식적 위임은 방패가 될 수 없다**

A사 사건에서 그룹 회장 B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책임을 현장 관리자나 CSO에게 서류상으로 위임하기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신호로 오독해서는 안 된다.

5 호흡 정지 시간이 4분이면 생존 가능성은 절반으로 떨어지고, 6분 이상이면 생존 가능성이 없다.  
6 황화수소(H<sub>2</sub>S)는 체내 철분 등과 결합해 세포 호흡을 차단해 저산소증을 유발하며, 고농도에서는 수 분 만에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제2항

**“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의 개정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 ”**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를 대표이사로 전제하면서도, 안전보건 관련 권한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었는지를 따졌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경영책임자'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각 호 등의 조치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Q&A]**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법리, 전문가에게 묻다**



**Q.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급이나 임대차와 같은 형식적인 계약 개념을 넘어 '해당 장소에 대한 법률상 권리나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작업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니다.”

**Q. 본사에 CSO를 선임하고 전결 규정을 두면 대표이사는 무조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직위나 서류상의 단순 위임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습니다. 핵심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의 귀속'입니다. 실제로 CSO를 선임하고 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전결권(예산, 인사 등)을 완벽히 부여해 실제 보고·결재·승인 절차가 CSO 중심으로만 운영된 점이 입증되어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실질적 권한의 위임 없이 CSO를 단순한 방패막이로 세우는 형식적 직무 분담 구조에서는 여전히 대표이사가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Q.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고 서류상 보고체계를 갖췄다면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단순히 위험성평가라는 형식이나 요약된 서류상 보고만으로는 실질적인 의무 이행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플라스틱 용기 제조사의 중대재해 사고 판결을 보면, 외부 안전 점검 기관으로부터 24차례나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음에도 경영책임자에게 현장의 구체적 위험 사실이 전달되지 않은 점을 들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인정되고, 대표 이사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경영책임자는 단편적인 서류 절차가 아닌, 구체적인 위험 정보가 자신에게 누락 없이 전달되는 실질적 보고 라인을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점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Q.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이 최우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크게 신경 써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의 개정에 따라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면 기록 및 보존의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사업주가 반드시 작업자에게 측정 장비를 물리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 측정된 유해가스의 결과치(측정 물질명, 정확한 농도, 측정 시간, 측정자 생명을 문서화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질식 사고가 발생했는데 3년간 기록 보존 내역이 없거나, 허위로 일괄 작성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다면, 이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 절차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무작정 동료를 구하려다 연쇄 질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사고 발생 시 119에 최우선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명문화되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 든든하고 달콤한 응원이 머문 자리, 안전이 자란다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시즌 2 '안전 한 스푼'  
한국 최초의 치즈 명가 임실치즈농협을 찾다

글. 김정덕 사진. 박현철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이 시즌 2를 맞아 새 옷을 입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안전 한 스푼'. 안전보건공단이 중소 규모 사업장을 찾아가 노동자들에게 든든한 간식과 시원한 음료를 전하며, 더 안전한 하루를 응원한다는 따뜻한 의미를 가득 담았다. 첫 발걸음이 닿은 곳은 1967년 국내 최초로 치즈를 생산한 유제품 생산전문조합, 임실치즈농협이다. 60년 가까이 한국 치즈의 역사를 써 내려온 이곳에서 100여 명의 임직원이 달콤한 응원의 시간을 함께했다.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시즌 2

# 안전 한 스푼



이 페이지는 노동자, 사업주 등 일하는 사람들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고 이해와 존중으로 안전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한 응원 공간이다.

“  
**오후의 나른함이 스며들 즈음  
 응원 간식차가 도착하자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

화창한 초여름 햇살이 내려앉은 오후,  
 임실치즈농협 앞마당이 평소와 다른 풍경으로  
 분주해졌다. 오후의 나른함이 스며들 즈음  
 응원 간식차가 도착하자 작업복 차림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고소한 크루아상 샌드위치와 커피 3종,  
 에이드 3종, 아이스티까지 일곱 가지 음료가  
 줄지어 놓이자 곳곳에서 얇은 미소와  
 탄성이 새어 나왔다.  
 미처 마당에 나오지 못한 동료들의 뒤통까지  
 두 손 가득 챙겨 가는 따뜻한 풍경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자칫 늘어지기 쉬운 시간에  
 한 잔의 음료와 한 입의 샌드위치가  
 일터에 활기를 더하며  
 임실치즈농협의 안전한 하루가  
 다시금 이어졌다.



# 공단 임플로이언서가 담은 '안전 한 스푼'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시즌 2 '안전 한 스푼'의 시작을 맞이하여,  
 공단 임플로이언서가 '응원 간식차'와 함께 임실치즈농협을 찾아  
 일터 안전을 응원했다. 기분 좋은 미소와 따뜻한 응원으로  
 가득했던현장을 임플로이언서의 시선으로 영상에 담았다.

여러분, 저 왔어요!  
 임실치즈농협의 일터 안전을 응원하러 왔어요!  
 기분 좋은 외침과 함께 시작된 취재길.  
 전복 임실의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임실치즈농협의  
 전경은 그 규모만큼이나 활기가 넘쳤어요.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현장 곳곳에  
 빈틈없이 부착된 안전표지들인데요.  
 위험 요소를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려는  
 문구들을 보니 마음이 참 든든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죠!  
 안전한 일터를 위해 노력하는 임실치즈농협에  
 응원의 힘을 보태고자, 우리 공단이  
 '안전 한 스푼' 간식차를 준비했답니다!  
 음료 한 잔을 나누며 주고받는 힘찬 '따봉' 리액션과  
 "오늘도 안전하게"라는 다짐들.  
 작은 간식에 담긴 진심 어린 응원이 현장에  
 안전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는 것을 느껴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모든 일터가  
 더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라요!  
 다음엔 또 어느 일터의 안전을 응원하러 가볼까요?



QR코드를 스캔해  
 현장 브이로그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사업장 안전다짐 · 임실치즈농협 김상기 상무 인터뷰

## 노동자 모두가 늘 안전하게, 가족 곁으로 돌아가는 일터를 꿈꾸며

임실치즈농협은 1967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치즈를 생산한 유제품 생산전문조합이다. 그로부터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유제품의 제조와 판매는 물론 조합원 지도사업, 임실과 전주의 신용업무까지 폭넓게 담당하며 한국 치즈 산업의 한 축을 이끌어 왔다. 100여 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이곳에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김상기 상무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 상무는 이번 ‘안전일터 응원 간식차’ 방문을 떠올리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안전에 대한 의식을 자연스럽게 일깨우는 발상이 무척 신선하게 다가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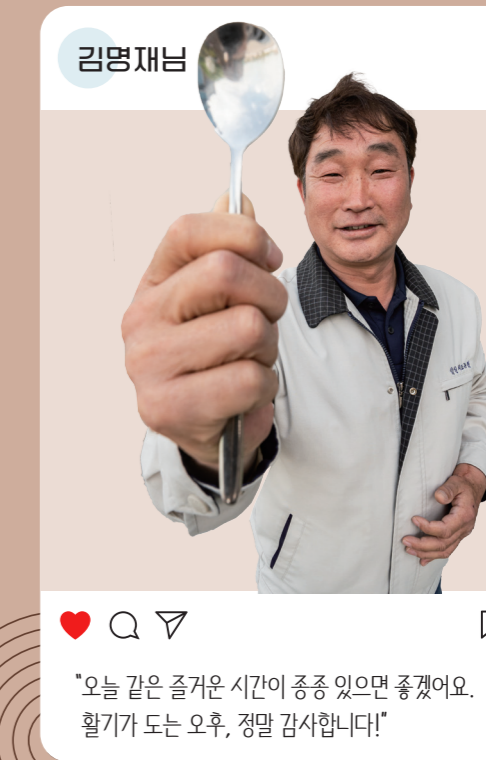
“산업안전이라고 하면 보통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마련인데, 간식차라는 친근한 매개를 통해 직원들이 안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은 즐거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임실치즈농협은 이미 일상 속에서 묵묵히 실천해 오고 있었다. 매일 작업이 시작되기 전, 안전관리자는 그날의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을 직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짚는다. 직원들은 법정 안전교육인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무엇보다 현장 위험성평가에 직접 참가해 위험 요소를 스스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안전과 관련된 소식은 단체 메시지를 통해 그때그때 공유되고 있으며 현장 곳곳에는 안전을 일러주는 안내문이 정성스레 붙어 있다. 사소한 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살피는 세심한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는 풍경이다. 그렇다고 현장에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김 상무는 모든 기업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시설 개보수나 안전설비



설치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가볍지 않다고 조심스레 짚었다. 또 사업장마다 작업 환경과 위험 요인이 조금씩 다른 만큼 획일적인 교육에 머무르기보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에 맞춰 안전 대책을 다듬어 가는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수시로 교육을 진행해도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늘 긴장한다고 했다. 이는 동료들을 가족처럼 지켜 내고 싶은 마음의 무게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그의 목소리에선 잔잔한 다짐이 묻어났다. 사고 없는 사업장, 각종 질환에서 자유로운 건강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작업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무겁거나 위험한 작업은 자동화 설비를 들여 점차 줄여 나갈 계획이다. 노후화된 설비도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며 정기 건강검진과 휴게 공간 개선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 직원들의 몸과 마음 모두가 든든히 보호받는 일터를 만들어 갈 생각이다. 인터뷰 말미에 그가 조용히 건넨 한마디는 이날 응원 간식차가 전하고 싶었던 마음과 그대로 맞닿아 있었다. “노동자 모두가 늘 안전하게,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장. 그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 나가야 할 가치입니다.” 한국 치즈의 역사를 써 온 임실치즈농협이 이제는 따뜻한 ‘안전한 일터’라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한 걸음씩 써 내려가고 있다.



“  
입사 20년 만에 이런 재미있는 응원은 처음입니다.  
다음에도 꼭 또 방문해 주세요!  
”



# 산재예방 글로벌 서포터즈



## 권경아 서포터즈



###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초보 라이더의 안전 배달 도전기”

요즘 배달은 우리 일상에서 떼어낼 수 없는 존재죠. 그만큼 안전도 중요하기에, 진짜 현장은 어떤지 몸소 느껴보고 싶어 배달 가방을 메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사실 마음이 앞서 서두르다 보니 아찔한 상황이 생길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안전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고, 신호와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요. 초보 라이더인 제가 얻은 첫 수익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영상 속 숫자는 소박해도, 안전을 챙기며 얻은 결과라 그 어떤 금액보다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무사히 도착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지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 도로 위 모든 라이더님들이 안전이라는 지름길로만 달리시길 응원합니다!

#BELOW50 #안전배달 #초보라이더



## 눈길을 사로잡는 영상, 일상에 스미는 안전 콘텐츠가 되다

글. 김정덕

“ 영상 끝에 남는 한 줄,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

산재 예방, 진지하게만 풀면 잔소리, 재미있게 풀면 콘텐츠가 됩니다. 안단테 15기 서포터즈가 각자의 시선으로 기획하고 찍은 짧은 영상에는 유행 챌린지부터 카드 피라미드, 라이더 도전기까지 저마다의 색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건설 현장 베테랑 반장님부터 길 위를 달리는 라이더까지. 누군가의 하루를 무사히 지켜낼 산재 예방 메시지를 만나보세요.

## 전지현 서포터즈



### “오늘 여러분의 안전 시점(POV)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즘 SNS에서 한 번씩은 봤을 문구 'POV(Point of View)'. 내가 주인공이 된 시점에서 상황을 보여주는 밈인데요. 이 유쾌한 형식을 빌려 '안전에 진심인 나'를 주인공으로 산업현장에서 절대 빠지면 안 될 3대 기초안전수칙을 풀어봤습니다. 안전도, 안전벨트 그리고 안전대까지. 하나씩 챙길 때마다 자신감이 차오르던 저인데요.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제대로 안전을 챙겨볼 분들 계신가요?

#3대기초안전수칙 #POV



## 이혜원 서포터즈



### “지금 쌓고 있는 안전 피라미드, 설마 한 장 빠진 건 아니죠?”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카드 피라미드. 그중 단 한 장만 빠뜨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그 장면은 산업현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했어요. 무너진 피라미드를 다시 쌓는 것보다 처음부터 견고하게 기초를 다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것처럼, 현장의 안전 역시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끝에 남는 한 줄,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피라미드 #지름길은안전



## 문지은 서포터즈



### “요즘 유행하는 거, 우리 안전이랑 딱이더라고요!”

요즘 너나없이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 그냥 즐기기만 하기에 아쉬워서 산업현장의 핵심 안전수칙을 엮어봤습니다. 외국인 동료부터 베테랑 선배님들까지 언어의 장벽 없이 함께 웃으며 스며드는 안전 챌린지. 제가 만든 60초의 영상이 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 기본 좋은 시작점이자, 사고 없는 '안전의 낙원'을 만드는 활력소가 되길 바랍니다.

#안전의낙원 #현장분위기메이커

#언어장벽없는안전



# 언어의 장벽을 넘어, 안전을 잇다

## 2026 외국인 안전리더 선발... 산재 예방 가교 역할 시작

글. 김정덕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활동할 '2026 외국인 안전리더'를 선발했다. 외국인 안전리더 도입 취지는 모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숙한 외국인을 안전보건 정보의 전달자로 위촉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당초 200명을 목표로 했다가 현장의 호응이 예상을 뛰어넘어 49명을 더 뽑았다. 베트남·중국·네팔 등 18개국 출신인 이들의 활동 기간은 2027년 4월까지 1년이다.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위촉 규모도 확대한 만큼, 외국인 노동자 산재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안전리더 도입 취지는 모국어와 한국어에 모두 능숙한 외국인을 안전보건 정보의 전달자로 위촉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

### 산재에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 안전의 가교 필요

공단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9000명에 달하며, 이 중 제조업·광업·조선업 종사자가 49만8000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한다. 또 2024년 외국인 사고사망자가 114명이나 된다. 안전보건 교육이 한국어 위주로 이뤄지고, 작업 현장의 위험 정보가 모국어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특히 2024년 외국인 노동자 20명이 목숨을 잃은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는 언어 장벽이 곧 생명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안전보건표지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처럼 중요한 안전 정보 대부분은 한국어로만 제공되는데 모국어 통역·번역은 부재했다. 이는 현장에서 위험 요인으로 작동해 왔다. 정부는 이에 '노동 안전 종합대책'(2025년 9월 15일)과 고용노동부 중기 사업계획에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을 핵심 과제로 반영했고, 공단은 모국어와 한국어 모두에 능숙한 외국인을 안전보건의 '전달자'로 세우는 작업에 착수했다.

### 목표보다 49명 많은 18개국 249명 선정

올해 모집은 3월 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다. 산업안전포털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전 채널을 통해 홍보한 결과 총 429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통번역 프리랜서, 사법 통역사, 전직 강사, 석박사급 연구자 등 경력이 다양했다. 공단은 권역별 서류심사와 인터뷰를 거쳐 249명을 선발했다. 사업장 활성화와 권역 특성을 고려해 당초 목표보다 49명을 늘렸다. 이들은 사업장 리더 79명, 지역 리더 170명이다. 사업장 리더는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인, 지역 리더는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결혼이민자·영주권자·귀화자·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특히 유학생은 재학 중 지역 리더로 활동하다 졸업·취업 후 사업장 리더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인재풀의 지속 가능성도 높였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50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42명, 네팔 30명, 스리랑카 21명, 우즈베키스탄 18명, 캄보디아 17명, 몽골 14명, 방글라데시 13명, 미얀마 12명, 필리핀 10명 등이다.

### 권역별 발대식 개최하고 산업현장 곳곳에서 활동

각 권역분부는 4월부터 5월 초까지 발대식을 열어 위촉장과 안전리더 배지를 수여하고, 양성교육도 실시해 안전리더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사업장 리더는 작업 전 점검회의 통역,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신규 외국인 동료의 안전멘토 등 현장 밀착형 활동을 맡는다. 지역 리더는 사업장 안전보건 교육·VR 체험 교육 통역, 안전보건 자료 번역·검수, SNS 안전 정보 확산까지 폭넓게 움직인다. 공단은 이들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안전보건 강사 자격 교육과정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우수자를 포상한다. 공단은 또 7월 초 권역별로 '외국인 안전리더 활동 사업장 지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지정 사업장에는 E-9 고용허가 점수 가점과 금융우대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외국인 안전리더 확산은 정부의 노동 안전 종합대책과 고용노동부 중기(2027-2030년) 사업계획에 핵심 과제로 반영된 만큼, 공단은 위촉 규모와 활동 영역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외국인 산재 예방의 안정적 기반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 한강을 달린 5000마리 잉어킹, '물·그늘·휴식'을 만나다

##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포켓몬 런 2026 in Seoul' 현장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진행

글. 김정덕

화창한 햇살로 눈부신 봄날 아침, 서울 한강 뚝섬공원이 주황색 잉어킹 모자를 쓴 러너로 가득 찼다. 올해 탄생 30주년을 맞은 글로벌 캐릭터 포켓몬과 함께 달리는 시민 참여 러닝 행사, '포켓몬 런 2026 in Seoul'이 열린 현장이다.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이날 업무 협약기관 SK텔레콤과 손잡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폭폭 찌는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 시민들에게 '물·그늘·휴식'이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안전수칙을 전하기 위해서다. 활기찬 러닝 행사에 시원한 안전 바람이 불었던 현장을 따라가 보았다.



### 어린이날 5000명의 러너가 한강변 달려

지난 5월 5일 오전 8시, 한강 뚝섬공원 수변무대 일대는 주황색 물결이었다. 포켓몬 30주년과 어린이날을 기념해 포켓몬코리아가 마련한 '포켓몬 런 2026 in Seoul' 행사 현장이었다.

5km '잉어킹 바둥바둥 런'과 8km '잉어킹 튀어오르기 런' 두 가지 코스로 진행된 이번 비경쟁 러닝 이벤트에는 사전 예약을 마친 5000명이 참가했다.

'처음엔 약하지만 진화하면 강해진다'는 포켓몬 잉어킹의 서사를 빌려, 참가자들이 직접 잉어킹이 되어 한강변을 달린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다양한 테마 키트를 받아 든 시민들은 출발선에 서기 전부터 잉어킹으로 변신했다. 서울스프링페스티벌 2026 로드쇼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만큼 외국인 참가자도 많았다. 스코틀랜드에서 온 한 참가자는 "포켓몬을 30년째 사랑해 왔다. 어렵게 티켓을 구해 한국까지 왔다"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대규모 인파가 한강변에 몰렸으나 행사는 시종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영됐다. 주최 측은 참가자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동선을 여러 갈래로 나눴고, 운영 인력을 코스 곳곳에 촘촘히 배치해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했다. 잉어킹 라운지의 굿즈 판매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현장 혼잡도를 낮춘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다. 그리고 이 '안전한 축제'의 한 축에는, SK텔레콤 부스 한편에 자리 잡은 안전보건공단의 캠페인이 있었다.



### SK텔레콤 부스에 마련된 또 하나의 '결승선'

출발선이 들썩이기 시작할 무렵, 부스 앞에 또 하나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와 SK텔레콤이 함께 준비한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었다.

공단은 부스를 찾은 시민들에게 이벤트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물·그늘·휴식'이 인쇄된 쿨 손수건 2000장을 나눠 줬다. 손수건은 참가자들이 사전에 받은 잉어킹 테마 키트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됐다. 단순한 홍보물을 넘어 하나의 '안전 굿즈'로 기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달리기 행사 특성상 탈수와 일사병 위험이 큰 만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안전수칙을 익힐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다. 출발 직전과 완주 직후,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부스 앞은 사실상 또 하나의 '결승선'이었다.

### "물·그늘·휴식"이 선제 대응에 나선 공단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이벤트성 홍보가 아니다. 기상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26년 연 기후전망'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평년(1991-2020년)보다 높을 확률은 70%에 이른다. 여름철 야외 활동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의 위험 또한 한층 커졌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는 시민 관심이 높은 대형 축제를 활용해 안전 메시지를 확산하는 '찾아가는 캠페인'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1월 SK텔레콤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내용 중 하나였다. 당시 두 기관은 서울지역 통신업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업체 안전보건 교육과 위험성평가 컨설팅, 아차사고 및 중대재해 예방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포켓몬 런 캠페인은 그 협약 정신을 산업현장 너머 시민 일상으로 확장한 첫 대형 협업 사례였다. 본격적인 폭염이 닥치기 전인 5월 초에 캠페인을 배치한 것도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보다, 위험을 미리 알리는 '선제적 예방'에 무게를 둔 결정이었다.

원방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은 "포켓몬 런이라는 대형 축제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완주하는 데 힘을 보태서 뜻깊다"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만큼 산업현장과 일상 생활에서 모두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강을 달린 5000마리의 잉어킹은 그렇게 '안전'이라는 또 하나의 메달을 손에 쥐고 돌아갔다.



# “정책과 현장을 잇는 교육 설계자가 목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특정교육부  
박영광 대리

글. 김정덕

교육원 한쪽에서 오늘도 감독관들의 ‘입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특정교육부 박영광 대리. 고용노동부 신규·재직 산업안전감독관부터 공공기관 경영진, 육군 안전 담당자, 예비 안전 인력인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특정’ 대상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사고가 나지 않은’ 결과를 성과로 삼는 조용한 일이지만, 그 파급력은 어느 업무 못지않다. 한 명의 감독관이 달라지면 수천 개의 현장이 달라진다. 사람을 통해 안전을 실현하는 일의 무게와 가능성을 들여 보았다.

**Q.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특정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 신규 및 재직 산업안전감독관 등의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새롭게 임용된 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되기 전 이수하는 ‘감독학교’ 과정부터 재직 감독관을 위한 위험성평가·공정안전관리 등 기본·심화 과정까지, 과정 설계부터 강사 섭외, 교재 준비, 현장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근무하고 계신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과 제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은 ‘사람’입니다. 교육원은 그 ‘사람’의 인식을 바꾸고 역량을 길러 주는 곳입니다. 감독관 한 분, 지도사 한 분이 교육을 통해 달라지면 그 영향은 그분이 마주하는 수많은 사업장과 노동자에게로 확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원은 사람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의 비전을 한 걸음씩 실현해 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특정교육’은 독자에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단의 일반 교육이 사업장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등 폭넓은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특정교육은 각 기관의 요청이나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대상을 위해 개발, 운영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지도사, 공공기관 경영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의사, KOSHA-MS 심사원, 학교 급식시설 담당자 등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수많은 현장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소수를 위한 교육이지만, 그 결과는 다수에게 닿는다’는 것이 특정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자 중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육 대상이 다양하네요. 설계, 진행 등 교육 전 과정을 담당하며 어느 것에 가장 중점을 두나요?**

“교육은 대상이 실제로 마주하는 업무 현장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깁니다. 감독관에게는 법 집행 관점의 판례와 행정 사례가, 군 간부에게는 군 특유의 작업환경과 지휘체계를 반영한 사례가, 급식실 관계자에게는 조리 휴·환기설비 등 현장과 밀착된 기술 지침이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설계 단계부터 주관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모시는 과정에서 교육의 ‘결’을 맞춰 갑니다.”

**Q. 그동안 경험한 것 중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수료 후 ‘교육 내용 덕분에 자칫 놓칠 뻔한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을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 단 한 건의 재해라도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상으로 남습니다. 감독학교에 긴장된 표정으로 입교한 신규 감독관들이 교육이 끝날 무렵 서로를 ‘동기’라 부르며 각자 소임을 다하고 다짐하는 모습도 기억에 남는 장면입니다.”

**Q. 업무 영역이 e러닝에서 대면 전문 교육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두 교육 방식을 경험하며 시각이 달라졌나요?**

“e러닝에서는 잘 설계된 콘텐츠가 많은 학습자에게 동일한 품질로 전달되는 ‘확장성’의 힘을 배웠습니다. 특정교육에서는 같은 주제라도 수강생의 질문 하나, 현장 사례 하나에 따라 논의의 방향이 달라지는 대면 교육만의 ‘깊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두 영역을 경험하며 얻은 결론은 ‘어떤 대상에게, 어떤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매체보다 설계에 있다고 믿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 설계 역량을 꾸준히 키워 가려 합니다.”

**Q. 교육 운영자로서 앞으로 그려 가고 싶은 방향과 개인적 목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책과 현장을 잇는 교육 설계자’가 목표입니다. 특정교육 대상은 정책 집행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인 만큼, 이분들을 위한 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일’과 맞닿아 있습니다. 감독의 무게중심이 ‘적발·처벌’에서 ‘예방과 지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 전환이 교육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접목해 교육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 밀폐공간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

**사망사고 고위험 요인**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상황 및 재해 유발 요인

## 밀폐공간 작업 고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고위험 ①**

환기 미실시(산소결핍, 유해가스 노출)

- 안전대책**
- 작업공간 출입 전 충분한 환기(급·배기 조치)
  - 작업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 등 적정 공기 상태 확인

**고위험 ②**

순간적으로 다량의 유해가스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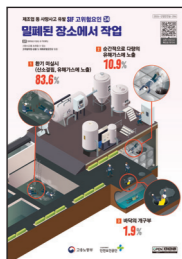
- 안전대책**
- 개인보호구(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 작업 전·중 작업공간 환기 및 적정 공기 상태 확인

**고위험 ③**

바닥의 개구부

- 안전대책**
- 개구부에 안전난간 또는 덮개를 견고하게 설치
  - 개구부에 추락 주의 경고표지 설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밀폐공간 작업' 재해 예방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

- (포스터) 밀폐공간 작업
- (스티커) 밀폐공간 작업 1
- (O P S) 재해 사례
- (스티커) 밀폐공간 작업 2



QR코드를 스캔하면 '밀폐공간 작업'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 외부마감 작업 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가이드

**사망사고 고위험 요인**  
(SIF, Serious Injury & Fatality)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작업·상황 및 재해 유발 요인

## 지붕·패널 설치 등 외부마감 작업 고위험 요인별 안전대책



**고위험 ①**

지붕 설치·보수 등 작업

- 안전대책**
- 추락방호망 설치 및 안전대 체결
  - 강도가 약한 지붕재에 안전덮개(발판) 설치 (채광창에 안전덮개 설치 철제)

**고위험 ②**

고소작업대 사용 작업

- 안전대책**
- 전·측면 안전난간 설치 및 안전대 체결
  - 차체 전도 방지, 안전장치 이상 유무 점검, 정격하중 초과 금지

**고위험 ③**

사다리 사용 작업

- 안전대책**
- 전도 방지조치 및 2인1조 작업 등 안전수칙 준수
  - 적정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 사용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사다리(K-사다리) 사용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외부마감 작업' 재해 예방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

- (O P S) 재해 사례 1
- (포스터) 외부마감 작업
- (O P S) 재해 사례 2



QR코드를 스캔하면 '외부마감 작업' 관련 안전보건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본 안전수칙

**제공 언어 (16개)**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네팔어, 동티모르어, 미얀마어,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어, 키르기스스탄어, 타지키스탄어

## 외국인 노동자 기본 안전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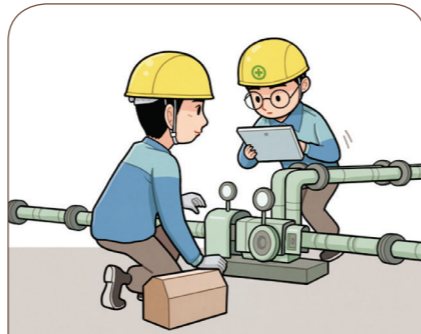
### 작업장 넘어짐 방지

이동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정리정돈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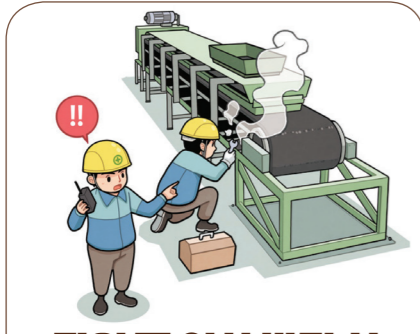
### 작업장 청결

깨끗하고 안전하게 정리하기



### 작업 전 점검

기계·기구 이상 유무 및 보호구 착용 여부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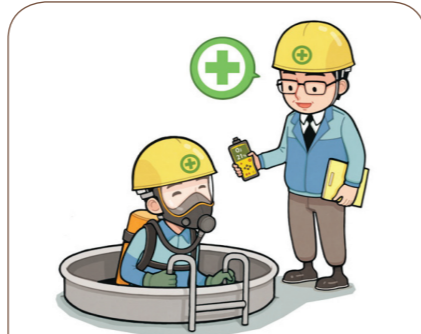
### 작업 중 이상 발견 시 즉시 보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지시를 받아 조치하기



### 무거운 작업 금지

혼자 들기 힘든 물건은 2인1조로 운반하기



### 밀폐공간 작업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보호장비 착용하기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SNS 메시지로 '기본 안전수칙'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 1 QR코드 스캔 >
- 2 이미지 클릭 >
- 3 필요한 언어로 제작된 이미지 선택 >
- 4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유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핵심 한국어

외국인 노동자용 화재 안전 가이드 (QR코드를 스캔해 한국어를 소리 내어 따라 해보세요!)



**불이야!**  
buriya!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불이야!"라고 외쳐 주변에 알려주세요.



**비상벨 눌러!**  
bisangbel nulleo!



비상벨을 통해 비상 상황을 빠르게 알려주세요.



**대피해!**  
daepihae!



화재 현장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대피해!"라고 외쳐주세요.



**119 신고해!**  
illilgu singohae!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후,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체크리스트**

**우리 사업장 화재 대응 점검해보기!**

화재 상황에서 우리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1. 외국인 노동자가 비상벨 위치를 숙지하고 있는가?
2. 119 신고 시, 외국인 노동자가 사업장 주소를 한국어로 말할 수 있는가?
3. 외국인 노동자에게 각 QR코드 영상의 한국어를 소리 내어 따라 해보도록 교육했는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외국인 노동자에게 SNS 메시지로 '화재 안전 가이드'를 공유해 주세요.

**공유 방법**

- 1 QR코드 스캔 >
- 2 이미지 클릭 >
- 3 외국인 노동자에게 공유

산업재해 통계

(확정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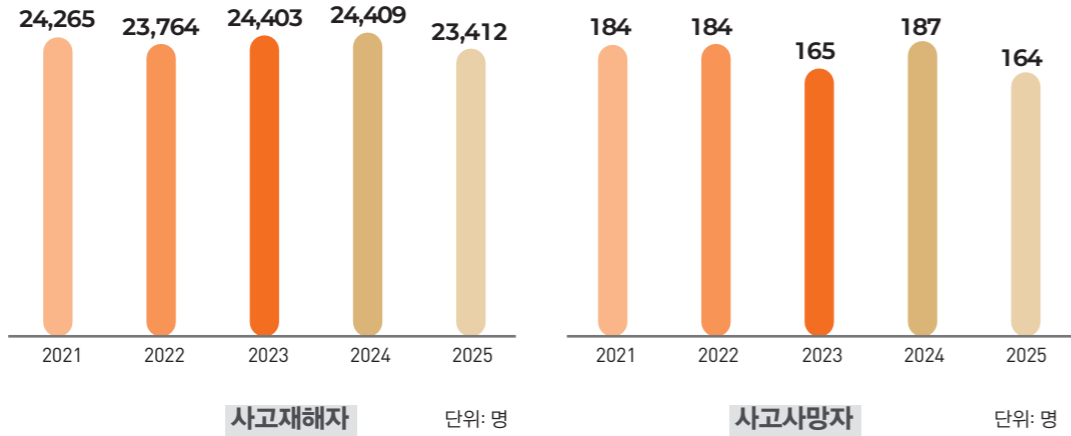
• 2026. 3. 31. 고용노동부 발표

제조업

# 2025년 제조업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25년 제조업에서 사고재해자 23,412명 발생, 주요 발생 재해는 끼임(27.59%)과 넘어짐(15.27%)’

최근 5년간  
제조업  
사고재해자 및  
사고사망자 현황



2025년 제조업  
사고재해자 및  
사고사망자 현황

구분	사고재해자	사고사망자
계	23,412	164
끼임	6,459 (27.59%)	44 (26.83%)
넘어짐	3,574 (15.27%)	6 (3.66%)
절단·베임·찢림	2,600 (11.11%)	0 (0.00%)
부딪힘	2,499 (10.67%)	14 (8.54%)
떨어짐	2,085 (8.91%)	31 (18.90%)
물체에 맞음	2,059 (8.79%)	16 (9.76%)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1,448 (6.18%)	0 (0.00%)
이상온도 접촉	638 (2.73%)	3 (1.83%)
깔림·뒤집힘	593 (2.53%)	18 (10.97%)
기타	1,457 (6.22%)	32 (19.51%)

**사고재해자 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한 수

**사고사망자 수** 업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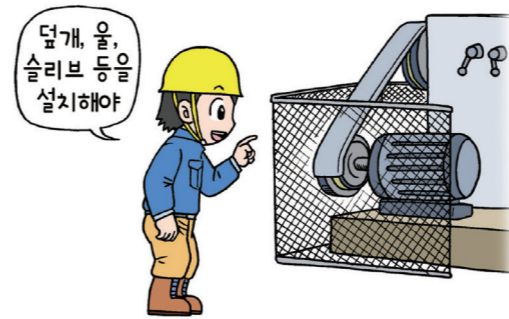
**발생 형태 용어** (끼임)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떨어짐)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넘어짐)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물체에 맞음)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깔림·뒤집힘)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부딪힘, (무너짐) 건축물이나 쌓인 물체가 무너짐

#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 제87조의 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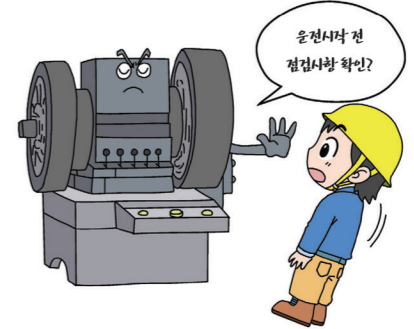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운전 시작 전 조치

### 제89조의 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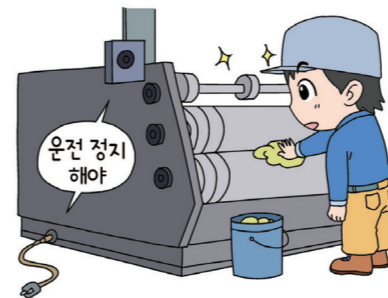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 제92조의 1항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덮개가 설치되어 있는 등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방호장치의 해체 금지

### 제93조의 1항

사업주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호장치의 수리·조정 및 교체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태양을 품은 붉은 보석, 토마토: 일상을 지키는 '천연 방패'

여름의 입구,  
의사의 얼굴을 파랗게 만드는  
신비로운 항산화의 미학

글. 김현학 iamfoodstylist 대표, 푸드 디렉터  
한국식문화진흥원 원장



### 초여름 햇살 아래 피어난 붉은 유혹, 토마토와의 조우

푸드 디렉터로서 21년의 세월을 식재료와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자연의 섭리 중 하나는, 계절이 깊어질수록 색채가 더욱 강렬해진다는 것입니다. 3월의 딸기가 봄의 설렘이었고, 5월의 꽃게가 화려한 성찬이었다면, 6월의 토마토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우리 몸을 단단하게 무장시키는 '천연 방패'와 같습니다. 초여름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고스란히 흡수해 붉게 익어가는 토마토를 보고 있노라면, 자연이 인간에게 선사한 가장 완벽한 건강 설계도를 마주하는 듯한 경외심이 듭니다.

“  
로마로 한 알은 단순한 채소를 넘어  
우리 몸의 산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  
붉은빛 에너지원이 됩니다.  
”

**질병을 막고 노화를 늦추는 '라이코펜의 마법'**

토마토가 '의사의 얼굴을 파랗게 만든다'는 속담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그 속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 **강력한 항산화의 정수(라이코펜):**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드는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변이를 막고 암 예방(특히 전립선암, 유방암)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라이코펜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E의 100배, 카로틴의 2배가 넘습니다.
- **심혈관 건강의 파수꾼:** 토마토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라이코펜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의 탄력을 높여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 토마토 속의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조절하는 데 기여합니다.
- **피부 노화 방지와 피로 해소:** 풍부한 비타민 C와 루틴 성분은 햇빛이 강해지는 6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기미와 잡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유기산 성분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합니다.
- **뼈 건강과 비만 예방:** 토마토 속의 비타민 K는 체내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열량은 100g당 약 14~20kcal에 불과하고 식이섬유는 많아 현대인의 체중 관리와 장 건강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고 습도가 높아지는 6월, 우리 몸은 쉽게 지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식탁 위에 오르는 토마토 한 알은 단순한 채소를 넘어 우리 몸의 산화를 막고 활력을 불어넣는 붉은빛 에너지원이 됩니다. 요리연구가로서 제가 마주하는 토마토는 전 세계 미식의 중심이자, 건강한 삶을 향한 인류의 열망이 투영된 가장 아름다운 식재료입니다. 6월의 토마토는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여름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건너가기 위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황금 사과'와 '늑대 사과' 사이에서 피어난 가치**

토마토의 역사는 오해와 매혹의 반복이었습니다. 본래 남미 안데스 산맥이 고향인 토마토가 16세기 유럽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화려한 빛깔 때문에 독이 있는 '늑대 사과'라 부르며 기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이 이 열매를 '황금 사과(Pomo d'oro)'라 부르며 식탁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토마토는 유럽 미식의 정점이자 건강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익스피어의 시대에는 '사랑의 사과'로 불리며 연인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낭만적인 식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 시대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에 '남만시(南蠻柿)'라는 이름으로 처음 기록되었습니다. 남쪽 오랑캐 나라에서 온 감이라는 뜻이지요. 처음에는 관상용으로 재배되었으나, 점차 그 뛰어난 효능이 알려지며 우리 식탁의 필수 채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서양에서는 과일처럼, 동양에서는 채소처럼 다루는 독특한 위치만큼이나 토마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장수를 돕는 최고의 건강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요리연구가인 저에게 토마토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건강한 미래를 잇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 서양에서는 과일처럼, 동양에서는 채소처럼 다루는 독특한 위치만큼이나 토마토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장수를 돕는 최고의 건강식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



**토마토의 올바른 선택과 건강한 관리법**

건강에 좋은 토마토지만,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그 효능은 천차만별입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정리한 관리 매뉴얼입니다.

**[STEP 1] 최상의 토마토 선별법**

1. **무게와 단단함:** 손으로 들어보았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겉면이 단단하며 탄력이 있는 것이 속이 짙은 토마토입니다.
2. **색상의 균일함:** 전체적으로 고르게 붉은빛이 돌며, 꼭지 부분이 싱싱하고 초록색을 띠는 것을 고르십시오. 노란색이나 초록색 무늬가 적을수록 완숙된 토마토입니다.

**건강과 풍미의 조화, '토마토 마리네이드 카프레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열을 가하거나 올리브유에 버무릴 때 흡수율이 4~5배 높아집니다. 6월의 청량함을 담은 푸드 디렉터 김현학의 시그니처 요리입니다.

**재료(3~4인분 기준) —**

- **주재료:** 완숙 토마토 2개(혹은 방울토마토 20개), 생모차렐라 치즈 120g, 바질 잎 약간
- **마리네이드 소스:** 올리브유 4큰술, 매실청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다진 양파 2큰술, 꿀 1큰술, 소금·후추 약간

**만드는 법 —**

1. **껍질 벗기기:** 토마토 꼭지를 떼고 끝부분에 십자(+) 모양으로 살짝 칼집을 냅니다. 끓는 물에 10초 정도 데친 뒤 바로 얼음물에 담가 껍질을 벗깁니다(이 과정을 거쳐야 소스가 속까지 잘 배어지고 식감이 고급스러워집니다.)
2. **소스 제조:** 불에 올리브유, 매실청(살균 효과), 발사믹 식초, 다진 양파 등을 넣고 잘 섞어 마리네이드 소스를 만듭니다.
3. **숙성:** 접시에 숙성된 토마토와 한입 크기로 썬 생모차렐라 치즈를 조화롭게 담습니다.
4. **완성:** 신선한 바질 잎을 손으로 찢어 올리고, 남은 마리네이드 소스를 넉넉히 뿌려 마무리합니다.

**TIP —**

- \* **영양의 시너지:** 올리브유의 지방 성분은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율을 극대화하고, 치즈의 단백질은 부족한 영양을 채워줍니다.
- \* **활용법:** 남은 마리네이드 소스는 빵을 찍어 먹거나 파스타 면을 삶아 비비면 훌륭한 '콜드 파스타'가 됩니다. 무더운 여름날, 지친 입맛을 돋우는 최고의 건강식이 될 것입니다.



6월의 뜨거운 태양 에너지를 고스란히 품은 토마토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든든한 건강의 전령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지금, 붉게 빛나는 토마토로 내 몸을 위한 작은 방패를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직접 껍질을 벗기고 소스를 만들어 식탁에 올리는 정성만큼, 여러분의 일상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익어가길 기원합니다. 위생과 안전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줄 것입니다. 붉은 보석 토마토가 전하는 생생한 활력이 여러분의 6월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안전일터 응원 캠페인 시즌 2

# 안전 한 스푼

우리 사업장 소개하고,  
'안전 한 스푼' 간식 받자!



신청 QR

- **대 상** : 안전한 일터를 꿈꾸는 전국 모든 사업장 ○
- **신청방법** : 우리 사업장 소개 영상 + 글 제출  
\* (영상구호) "오늘도 안전하게! 우리 일터에 안전 한 스푼" ○
- **참여경로** : QR코드 스캔 후 네이버 폼 제출 ○
- **진행절차** : 신청접수 → 사업장 선정 → 일정조율 → 안전 한 스푼 간식차 출동 ○



 안전보건공단  
YouTube 채널

안전보건교육 영상

# 여기!

# 다~있습니다

# 어디?

# 안전보건공단

# 유튜브



매월 진행 되는 안전보건공단 유튜브 '구독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안전보건공단 구독